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한 · 중 무역불균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楊 賀

2011年 2月

韓 · 中 貿易不均衡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高昞杓

楊 賀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1年 2月

楊賀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①

委 員

①

委 員

①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1年 2月

< 목 차 >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제 2 장 한·중 무역의 현황 및 특징	4
제 1 절 한·중 무역의 현황	4
1. 한·중 무역 현황	4
2. 한국 대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	7
제 2 절 한·중 무역의 특징	9
1. 한·중 양국 산업구조의 보완성	9
2. 무역협력 관계의 증진과 무역량의 급증	12
3. 양국 수출입 상품 구조의 고도화 진전	13
제 3 장 한·중 무역구조 분석	17
제 1 절 가공단계별 무역구조	17
제 2 절 기술수준별 무역구조	21
제 3 절 한국의 대중국 지역별 무역구조	25
제 4 장 한·중 무역불균형 현황 및 원인	29
제 1 절 한·중 무역불균형 현황	29
1. 무역수지와 국민경제 영향	29
2. 한·중 무역의 확대와 무역불균형 초래	31
제 2 절 한·중 무역불균형의 원인	36
1. 중국 무역정책의 변화	37
2. 한·중 무역불균형의 특징	38
3. 중국의 전반적 대한국 수출 여건 미비	41

4. 한국의 무역정책 우위요소	42
5. 한국의 대중국 수출 전략 추진 요소 강화	43
제 3 절 한·중 무역불균형의 문제점	45
1. 한·중 무역 구조 변화의 문제점	45
2. 한·중 무역수지의 불균형	47
3. 한·중 직접투자의 불균형	49
제 5 장 한·중 무역불균형의 개선방안	53
제 1 절 수출입 품목 구조조정 가속화	53
제 2 절 한국 수출시장의 다변화 방안 추진	55
1. 경쟁국의 시장잠식에 대비한 제품 차별화 전략 수립	55
2. 무역과 투자의 결합을 통한 대중국 교역 확대	56
3. 수출제품 및 시장의 다변화	56
4.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	56
5. 중국 통상 협상력 제고	57
제 3 절 대흑자국 중심 균형화 집중	57
1. 수입상품 전시회 지원 강화	57
2. 수입 사절단 파견 확대	57
3. 보호무역 저지를 위한 양자간·다자간 노력 지속	58
제 4 절 한·중 통상 협력 강화	58
제 5 절 한·중 FTA의 실현을 통한 무역불균형 해결	59
1. 한·중 FTA의 기대 효과	59
2. 한·중 관세 인하를 통한 무역확대	60
3. 한·중무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협력	61
제 6 장 결론	63
참고문헌	66
ABSTRACT	69

〈표 목차〉

<표 2-1> 한국의 대중국 무역 현황	4
<표 2-2> 한국의 대중국 무역 비중 현황	5
<표 2-3> 중국의 대한국 무역 비중 현황	6
<표 2-4>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	7
<표 2-5>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	9
<표 2-6> 중국의 대한국 주요 수출품	14
<표 2-7> 중국의 대한국 주요 수입품	15
<표 3-1> 대중국 수출의 가공단계별 분포	17
<표 3-2> 대중국 수입의 가공단계별 분포	19
<표 3-3> 가공단계별 대중국 무역수지	20
<표 3-4> 한국의 기술수준별 대중국 수출 구조 변화	22
<표 3-5> 기술수준별 분류 기준	23
<표 3-6> 한국의 기술수준별 대중국 수입 구조 변화	23
<표 3-7> 기술수준별 대중국 무역수지	24
<표 3-8> 한국의 대중국 성/시별 수출	26
<표 3-9> 한국의 대중국 성/시별 수입	27
<표 3-10> 한국의 대중국 권역별 수출 비중 변화	28
<표 3-11> 한국의 대중국 권역별 수입 비중 변화	28
<표 4-1> 한국 주요 교역국 대상 2009년 무역수지 현황	31
<표 4-2> 한·중 무역역조 추이	37
<표 4-3> 중국의 대한국 수출구조의 변화	47
<표 4-4> 한·중 투자 현황	50
<표 5-1> 한국 제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55
<표 5-2> 한·중 FTA의 경제성장 효과	59
<표 5-3> 한·중 간 관세율 비교(2009년 기준)	60
<표 5-4> 한·중 관계의 특수성 및 FTA 추진 시 고려 사항	62

<그림 목차>

<그림 4-1>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중 교역동향	33
<그림 4-2> 중국의 대한민국 무역적자 동향	48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중 양국은 역사·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한 동안 정치적 이유로 단절의 역사를 경험했다. 한국은 1967년 1월 무역거래법을 제정할 당시 공산권 국가와의 교역을 전면 중지함으로써 70년대 중반까지 한·중 양국 간의 교역은 전무했다. 그 후 1972년 12월 무역거래법 제2차 개정 후 특정 국가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산권 국가와의 교역을 가능케 함으로써 양국이 새로운 교역관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미수교 관계였기 때문에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을 통한 간접교역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역의 초기에 한국 측은 중국으로부터 고추, 참깨 등 특정 농산물에 한정된 교역이라 할 수 없는 만큼의 미미한 물품의 수입에 그쳤다. 본격적인 교역이 이루어진 것은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시작한 1979년부터라 볼 수 있으며, 1984년 한국과 북한간의 대화가 추진되고 아울러 한·중 체육교류가 활발해지면서부터 교역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은 한국의 5위 교역 상대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8위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1992년의 한·중 무역협정체결, 차별관세 철폐와 투자보장협정, 한·중 수교 등이 이어지면서 한·중 경제 협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의 대중국시장의 수출비중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증가 요인은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수입·수요의 증가,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등 제도적 여건의 개선, 직접투자 및 임가공 증가에 의한 설비, 원부자재 수출증가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의 심화와 2001년 WTO 가입 등 글로벌화 된 세계경제에 본격적으로 두각을 드러내면서, 자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고,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10% 이상의 지속적 성장과 함께 세계 무역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09년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무역 수출국이다. 중국은 오늘날 한국의 제 1 무역 대상국으로, 한국기업의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홍콩을 제외할 경우 중국의 3대 교역 대상국이 되었다. 중국의 대외무역규모가 급성장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무역규모는 갈수록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한·중 무역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양국 간 무역 분쟁의 빈번한 발생 등 한·중 무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마늘 분쟁', 2004년 '김치 분쟁' 등 무역마찰은 양국 관련 산업에 거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또한 양국 간 무역에서 한국은 과도한 대중 무역 흑자로 한국경제는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특정 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으면 경제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요소도 무시할 수가 없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점점 많은 산업에서 한국과의 경쟁관계가 심화하게 되었다. 앞으로 한·중 무역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재 양국 간 무역구조의 자세한 실태분석을 통해 한·중 무역관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무역불균형의 시정을 위한 개선방안과 한·중 무역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무역불균형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고찰하고, 한·중 무역구조 분석을 통하여 한·중 무역불균형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중 무역불균형을 해결하고 양국 간의 무역확대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사회과학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헌조사 연구와 무역통계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병행 하 있다. 구체적으로 문헌조사연구는 주로 한국 내에서 발행된 학위논문과 연구논문, 및 각 연구소의 연구논문과 보고서들을 참고하였으며, 중국의 연구논문 및 보고서를 통해서 한·중 양국의 무역

구조 변화 및 무역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무역구조 분석은 한국과 중국당국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비교분석 하였으며, 한국 수출입 통계 분석내용은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무역통계를¹⁾ 기초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 계산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중 무역의 현황 및 특징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중 무역구조 분석을 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한·중 무역불균형 현황 및 원인, 제5장에서는 한·중간의 무역불균형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은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정리하였다.

1) <http://stat.kita.net/main/stat>.

제 2 장 한·중 무역의 현황 및 특징

제 1 절 한·중 무역의 현황

1. 한·중 무역 현황

대중국 수입액은 2009년에 535억 7백만 달러로 2008년보다 32.7%를 증가하였으며 2005년보다 180.85%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수입의 증가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는 한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²⁾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009년에 145,013백만 달러, 2008년의 123,460백만 달러보다 2005년 497억 6천 3백만 달러에서 2009년도에는 819억 8천 5백만 달러로 2005년 대비 64.8%로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이 차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2-1> 참조)

<표 2-1> 한국의 대중국 무역 현황 (단 위 : 백만 달러, %)

구분 연도	수출입	증가율	수출 ²⁾	증가율	수입	증가율
2005	79,348	39.2	49,763	41.7	29,585	35.0
2006	100,563	26.7	61,915	24.4	38,648	30.6
2007	118,016	17.4	69,459	12.2	48,557	25.6
2008	123,460	22.9	69,953	18.0	53,507	29.8
2009	145,013	33.7	81,985	26.9	63,028	32.7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자료를 정리함.

2) 산업자원부산업연구원에 의하면 무역특화지수에 의해 중국과의 교역패턴을 분석해 본 결과, 제조업의 경우 2007년의 대중 수출특화구조가 상단부분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한국의 대중국 무역 비중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총수출액	대중국 수출액	비중(%)	총수입액	대중국 수입액	비중(%)
1999	136,164	13,572	10.0	144,616	10,117	7.0
2000	132,313	11,943	9.0	93,282	6,484	7.0
2001	143,685	13,685	9.5	119,752	8,867	7.4
2002	172,268	18,455	10.7	160,481	12,799	8.0
2003	150,439	18,190	12.1	141,098	13,303	9.4
2004	162,471	23,754	14.6	152,126	17,400	11.4
2005	193,817	35,110	18.1	178,827	21,909	12.3
2006	253,845	49,763	19.6	224,463	29,585	13.2
2007	284,419	61,915	21.8	261,238	38,648	14.8
2008	325,465	69,459	21.3	309,383	48,557	15.7
2009	371,489	81,985	22.1	356,846	63,028	17.7

출처 : 한국무역연감(한국무역협회)자료를 정리 함. 2009.10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표 2-2> 한국의 대중국 무역 비중현황과 같이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도 총 수출액 1,361억 6천 4 백만 달러 중 135억 7천 2백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0%를 차지하였으며 점 차적으로 비중이 늘어나면서 2009년도 총 수출액 3,714억 8천 9백만 달러 중 819억8천5백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 의 22.1%로 한국의 총수출에서 대중국 수출 의존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³⁾는 10년 사이 전체 수출에서 12%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액이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표 2-2>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비중현황과 같이 1999년도 총수입액1,446억 1천6백만 달러 중 101억 1천 7백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7%를 차지하였으며 점차적으로 비중이 늘어나면서 2009년도 총수입액 3,586억 4천 6백만 달러 중 630억 2천 8백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7.7%로 한국의 대중국수입 의존 비중 또한 상당히 크게

3) 중국의 수출시장 변화는 동북아 경제의 상호의존성 증가가 중국 상품의 미국·유럽연합 시장 수출증가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성장이 견인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상호의존성은 역외국 경제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동북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와 수출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조립 공장을 통한 역외 선진국가군으로의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국가들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증가는 이처럼 중국의 미국·유럽시장 수출의존도 증가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1997년 7%에서 2009년 17.7%로 10년간 10%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표 2-3> 중국의 대한민국 무역 비중 현황 (단 위: 백만 달러)

연도	총 수출액	대한국 수출액	비중(%)	총수입액	대한국 수입액	비중(%)
2000	180,516	6,232	3.5	140,385	15,021	10.7
2001	195,177	7,817	4	165,779	17,232	10.4
2002	249,240	11,287	4.5	225,095	23,208	10.3
2003	266,661	12,544	4.7	243,567	23,396	9.6
2004	324,642	15,508	4.8	295,303	28,581	9.7
2005	438,473	20,105	4.6	413,096	43,161	10.4
2006	593,647	27,809	4.7	560,811	62,166	11.1
2007	762,327	35,117	4.6	660,222	76,874	11.6
2008	969,324	44,558	4.6	791,794	89,818	11.3
2009	1,128,155	56,129	4.6	956,261	104,045	10.9

출 처: <http://stat.kita.net> -무역통계-품목별수출입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액이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표 2-3> 중국의 대한민국 무역 비중 현황과 같이 2000년도 총 수출액 1,805억 1천 6백만 달러 중 62억 3천 2백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5%를 차지하였으며 큰 변화 폭 없이 미세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2009년도 총 수출액은 1조 2,181억 5천 5백만 달러 중 561억 2천 9백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 의존도는 9년 사이 큰 변화 없어 양적 성장만을 보였다.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액이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표 2-3> 중국의 대한민국 무역 비중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도 총수입액 1,403억 8천 5백만 달러 중 150억 2천 1백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0.7%를 차지하였으며 큰 변화 없어 1~2%대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2009년도 총수입액은 9,562억 6천 1백만 달러 중 1,040억 4천 5백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0.9%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전체 수입에 대한민국 수입의존도는 10.9%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 의존도 또한 9년 사이 큰 변화 없어 양적 성장만을 보였다.

2. 한국 대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

과거 한·중 무역에서 중국의 수출품은 대부분 노동집약형 제품이였으며, 한국의 수출 제품은 제품부가가치가 큰 제품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몇 년 한·중 무역의 내용면에서 새로운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

<표 2-4>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 위	품목 명	2008년		2009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91,389	11.5	16,518	-25.1
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7,058	20.3	2,221	26.8
2	무선통신기기	6,484	14.1	1,373	-7.1
3	반도체	8,729	-5.7	1,332	-37.4
4	합성수지	5,333	16.9	1,189	-7.5
5	석유제품	8,517	63.5	955	-40.1
6	철강 관	2,996	23.0	673	-2.8
7	석유화학합성원료	3,381	14.3	612	-31.4
8	컴퓨터	4,148	-30.0	573	-57.4
9	자동차부품	1,945	-15.0	433	-27.2
10	석유화학중간원료	2,838	0.4	412	-46.8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http://stat.kita.net> -무역통계-품목별수출입

2008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11.5% 증가한 914억 달러, 수입은 22.1% 증가한 796억 달러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45억 달러 (23.7%) 감소한 145억 달러로 나타나 2005년을 정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2008년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1.7%이며, 2008년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가 133억 달러 적자로 전환된 반면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145억 달러 흑자로서 2005년부터 대중 무역수지가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를 상회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2003년에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5년 이래 줄곧 20% 이상의 높은 수출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 및 수입은 2008년 4/4분기에 각각 23.9%, 9.3%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무역흑자는 전년 동기대비 38.6억 달러(72.8%)감소하였다. 이는 2008년 10월부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3.5%)하기 시작하여 11

월 33.3%, 12월 35.4%의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인하며, 2009년 들어서도 1월 38.6%, 2월 13.6%, 3월 22.2%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한국의 수출은 전년대비 59.6%포인트 증가한 석유제품(63.5%)의 수출 확대가 전체 수출 증가를 주도했으며, 그 외 합성수지, 석유화학 합성원료, 철강관 등이 수출 호조품목이다.⁴⁾ 반도체(5.7%)와 컴퓨터(30%)는 2008년 수출 증가율이 감소세로 전환된다.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 중간원료 등은 증가율이 대폭 둔화된다. 2009년 1~3월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5.1% 감소했으며, MTI 3단위 기준 10대 대중국 수출품목 중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26.8%)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37.4%), 석유제품(40.1%), 컴퓨터(57.4%), 석유화학 중간원료(46.8%)는 약 40~50%대의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2008년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철강 판, 석탄, 레일 및 철 구조물,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등이 대폭 증가하였고, 반도체 정밀화학 원료 등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는 증가폭이 대폭 둔화되었으며, 의류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09년 1~3월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31.9%로 감소했으며, MTI 3단위 기준 10대 대중국 수입품목 중 레이일 및 철 구조물(50.6%),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91.9%)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입이 감소하였다. 2008년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을 가공단계별로 구분하면 전체 대중국 수출의 77.8%가 부품 및 부분품, 산업용 원자재, 연료 및 운할유 등 중간재이며, 최종재는 21.3%에 불과하다. 최종 재 21.3%는 자본재가 1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구 및 비내구 소비재가 2.4%, 음식료품이 0.5%로 구성되어 있다.

4) 張騰蛟, "韓中間 貿易構造와 比較優位 變化에 관한 研究", 석사논문, 圓光大學 大學院. 2009. 4. pp.5~6.

<표 2-5>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 위	품목 명	2008년		2009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76,930	22.1	12,239	-31.9
1	철강 판	9,622	116.9	1,154	-36.1
2	컴퓨터	4,858	0.2	988	-33.3
3	반도체	5,864	39.3	967	-26.3
4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3,391	32.7	732	-6.9
5	의류	3,078	-6.3	519	-32.8
6	무선통신기기	2,158	20.3	367	-22.6
7	석탄	2,815	74.3	338	-7.5
8	레일 및 철 구조물	950	98.8	324	50.6
9	정밀 화학원료	2,057	37.2	289	-37.4
10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774	128.2	283	91.9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http://stat.kita.net> -무역통계-품목별수출입

2008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부품 및 부분품(전년대비7.8% 증가), 산업용 원자재 (9.7% 증가), 자본재(동 6.0% 증가) 수출은 부진했던 반면, 산업용 연료 및 운할유의 대중국 수출은 유가상승 요인으로 인해 6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대중국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제 2 절 한 · 중 무역의 특징

1. 한 · 중 양국 산업구조의 보완성

국제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경제 상호 보충이란 부동한 국가 혹은 지역 사이에 생산력 등 여러 요소들의 상호 보충과 상호 의존의 관계를 말하는 데 이런 상호

보충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제품, 노무, 기술, 서비스 혹은 투자의 제공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경제상의 상호 보충을 구성하려면 세 가지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첫째는 서로 우세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서로 수요가 있어야 하며, 셋째는 서로 소망이 있어야 한다. 일방적인 우세는 상호 보충의 물질적 기초를 구성할 수 없다. 서로 우세가 존재하지만 양국 우세의 구조가 같거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도 교류의 목적에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 보충을 구성할 수 없게 된다. 설사 양국이 우세와 수요가 있지만 정치가 대립되거나 한쪽이 쇠국정책을 실시하여 내왕할 수 없게 하여도 상호 보충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비교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한·중 양국의 역사, 정치요소 및 경제발전단계가 부동하기 때문에 두 나라를 객관적인 고도의 경제 상호 보충성이 존재하게 하였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에서 표현할 수 있다.

첫째, 생산요소의 상호 보충성이다. 이것은 자연자원, 인력자원과 응용기술방면의 상호 보충성으로 표현된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연자원과 인력자원을 갖고 있으며 지역이 넓고, 농산물과 광산물이 풍부하며 시장잠재력이 크다. 특히 10여년의 경제건설을 거쳐 이미 방대한 국민 경제체계를 형성하였으며 기초연구와 고 과학기술 분야의 우세를 갖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자본, 응용기술, 가공조립, 경영관리에서 뚜렷한 우세를 갖고 있지만 한국은 자연자원과 노동력 자원이 부족하며 국내 시장이 좁고 시장규모도 넓지 않다. 이로부터 중국은 자연자원과 노동력의 우세가 있고 한국은 자본과 기술우세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한·중 두 나라가 생산요소 측면에서 아주 큰 상호 보충성을 갖게 하였다. 서로의 장점으로 자신의 단점을 미봉하는 것은 두 나라의 경제발전에 아주 큰 도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상방간의 무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산업구조의 상호 보충성이다. 경제발전수준의 단계성 차이는 두 나라의 산업구조에 다단계의 상호 보충성이 존재하게 하였다. 산업구조이론에 의거하면 일반적으로 자본, 기술 집약형 영역에서 비교우세의 경제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노동력, 자원 집약형 영역에서는 비교우세의 경제가 있는데 경제 발전단계에서 우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자본밀집과 기술 집약형 산업과 기술방면에서 상대적 우세를 갖

고 있다. 중국과 한국이 외교관계를 건립한 이래 두 나라의 무역을 놓고 부동한 용도에서 무역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놓고 보면 한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은 자본 및 기술 집약형 산업에서 수출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지만 비내구재 소비형과 노동 집약형 경공업 산업에서는 수입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개별 산업간 혹은 산업내부의 부동한 업종관계로부터 더 분석해보면 섬유, 방직물, 여러 가지 제품, 정밀기계, 1회용제품 등 산업에서 한국은 중국에 대해 수입특징을 나타냈고, 나머지 기타 산업업종에서는 수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도로용 차량, 일반기계, 화학 산업, 강철, 사무실용 기재 등 산업에서 수출 특징은 더 뚜렷이 나타났다. 현재 중국의 산업구조는 조정 시기에 처해 있는데 중국은 교통, 에너지자원, 중요 원재료 등 기초공업과 기초시설들을 먼저 발전시킬 것인데 이것은 곧 한국이 우세가 있는 것 들이다. 두 나라가 발전 협력 할 염원이 있지만 하면 이런 협력은 모두 가능해 질것이다.

셋째, 제품의 상호 보충성이다. 현재 한·중 양국 제품의 등급을 놓고 볼 때 중국의 제품은 노동 집약형을 위주로 등급과 부가가치가 비교적 낮은 제품에 속하지만 한국은 자본과 기술함량이 비교적 높은 중고급과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을 생산한다. 제품의 생산형태를 놓고 보더라도 중국은 아직 품종이 적고, 단일하며 주기가 길고 대량적인 생산단계에 처해 있지만 한국은 이미 품종이 많고 주기가 짧은 소량 생산단계에 들어섰다. 제품의 생산과정을 놓고 보더라도 중국은 뒤떨어진 가공과 조립단계에 처해 있지만 한국은 원료, 부품과 반제품을 가공하는 단계에 속한다.

넷째, 수출입 상품 구조측면에서의 상호 보충성이다. 수출입 상품의 구조측면에서 다 년간 중국이 한국에 수출한 상품에는 주요하게 원림수산물, 방직제품, 광물제품, 강철, 석유와 유색금속 등이 있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한 제품에는 주요하게 방직제품 전자 및 가전제품, 화학공업제품, 철강 등이 있다. 수출입 제품의 구조로부터 볼 때 한·중 양국은 모두 우세를 갖고 있는데 이것 역시 두 나라 경제가 부동한 단계에 처한 필연적인 반응이다⁵⁾.

5) 박 광 희, 한·중 교역과 대중국 투자에 관한 연구. 청주대 대학원. 2008, pp.37~39

2. 무역협력 관계의 증진과 따라 무역량의 급증

중국과 한국이 외교관계를 건립한 이래 두 나라 무역은 빠른 발전을 가져왔고 양국 간의 무역액은 외교관계를 건립할 당시의 98.2억 달러로부터 2008년의 1,860.7억 달러로 증가하였는데 증가율은 18배에 달한다. 2009년 한·중 무역액은 전년도에 비해 42.5%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대외무역 총액이 37.1% 증가한 수준보다 훨씬 높았고 중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일본과의 31.1%, 두 번째로 큰 무역파트너 미국과의 34.3% 증가 속도보다 더 빨랐다⁶⁾.

2008년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출은 552.2억 달러로서 전년도에 비해 38.4% 증가하였고, 중국이 한국에서의 수입액은 1,244.5억 달러로서 전년도에 대비해 51.0% 증가하였다⁷⁾. 중국과 한국의 수출입 무역액이 빠른 증가를 가져오는 동시에 한·중 무역 수출입 비중이 두 나라의 대외무역에서 갖는 비중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었다. 1992년 한·중 무역액은 50.2억 달러로서 중국 대외무역비중의 3%, 한국의 3.2%를 차지하였지만 2008년에 이르러 두 나라의 무역액은 이미 중국 대외 무역의 9.1%, 한국의 16.1%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중 경제가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것은 우선 양국 정부의 의지에 있다. 외교관계를 건립한 뒤 두 나라는 선후하여 <한·중 정부 무역협정>, <투자보호협정>, <해운협정>, <이중세금과세 및 탈세방지협정>, <한·중 정부 어업협정> 등 일련의 정부 협정들을 체결하였으며, 한·중 무역과 기술협력연합위원회, 한·중 산업협력위원회,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한·중 무역실무 등 여러 가지 협력기구들을 설립하여 양국의 무역의 협력발전을 위하여 유익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양국의 경제는 생산요소, 산업구조와 제품 등 방면에서 강한 상호보충성을 갖고 있는데 이는 무역액의 높은 증가를 이끌어 내었다. 이외에도 중국과 한국의 최근 경제의 양호한 발전 과정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두 나라 경제의 성장은 각국의 수출에 풍부한 상품 공급원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수입에도

6) 소 죽 연·손 항 충, 한·중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07, p.54.

7) 허 장 문, “한·중 무역관계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학위논문. 2009, p.49.

넓은 시장을 제공하였다⁸⁾.

3. 양국 수출입 상품 구조의 고도화 진전

첫째,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출상품의 구조로 부터 볼 때 다년간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출은 대부분 낮은 부가가치의 자원 집약형과 노동 집약형제품인데 특히 원료형 상품과 그 제품을 위주로 하였다.

예를 들면 방직원료 및 그 제품, 실크 금속 및 그 제품, 광산물, 농산물 등이다. 그러나 중국이 외국자본을 이용하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산업구조의 부단한 조정과 업데이트로 한국에 대한 수출상품의 구조도 점차 최적화 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현저한 것은 기계와 전기제품, 음향설비 및 제품의 증가 속도가 아주 빠른 것인데 이것은 방직원료 및 제품들을 초과하여 2008년과 2009년 연속으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출이 가장 많은 제품 유형으로 되었다.

광산물이 한국에 대한 수출은 그 다음으로 2008년의 4위로부터 2009년의 3위로 상승하였으며 실크 금속 및 그 제품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4위로 하강하였고, 화학공업유형의 제품은 6위로부터 5위로 상승하였다. 방직원료 및 그 제품은 원래의 제1수출 상품으로부터 2008년과 2009년의 2위로 하락하였다. 3위부터 6위는 차례로 광산물, 실크 금속 및 제품, 화학공업제품 및 식물제품이다.

<표 2-6>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출상품은 주요하게 기계전기제품, 음향설비 및 부품, 방직물원료 및 제품, 실크 금속 및 제품, 광산물, 화학공업제품과 농산물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품들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출총액의 4분의 3이상을 차지한다.

8) 허장문, 전개서, 2009. p.50.

<표 2-6> 중국의 대한민국 주요 수출품 (단위: 억 달러)

주요 상품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등 수	금액	등 수	금액	등 수	금액	등 수	금액	등 수	금액	등 수	금액	등 수	금액
방직원 료 및 제품	1	23.8	1	27.1	1	26.5	1	27.8	1	28.9	1	30.1	1	32.1
싼금속 및 제품	2	13.4	2	10.5	2	7.6	2	9.8	2	14.2	2	17.2	2	16.8
광산품	3	11.3	3	13.7	3	13	3	9.7	3	12.6	3	13.2	3	14.1
기계전 기 음향 및 제품	4	25.5	4	32.1	4	31.3	4	34.6	4	30.7	4	38.9	4	40.1
화학공 업 유 형 제 품	5	7.1	5	8.1	5	8.9	5	9.1	5	9.7	5	10.2	5	11.3
식물 유 형 제 품	6	8.7	6	6.4	6	5.8	6	7.9	6	8.9	6	9.1	6	9.7

자료: 시용해(2010), p.26.

2009년 중국의 방직원료 및 제품, 기계전자 음향설비 및 부품,싼 금속, 광산물, 화학공업과 곡물 등 6대 상품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출총액의 90%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이 6가지 유형의 상품이 한국에 대한 수출은 전년도에 비해 평균 두 자리 이상의 증가를 보였는데 그중 기계전자 음향설비의 증가율은 41%에 달했다.

둘째,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구조로부터 볼 때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구조에서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상품 중에 전자제품, 강철 제품, 일반 기계 등 고부가가치의 공업제품의 수입량은 안정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방직원료와 그 제품은 2003년의 제1위로부터 점차 하락 되어 2009년에는 3위에 이르렀고 기계전자유형의 상품은 2004년 으로부터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⁹⁾

근년에 중국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아주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 증폭이 제일 큰 것 역시 6대 유형의 제품들인데 연간 수입 증가율은 45.9%에 달한다. 이 6가지 유형의 상품은 : 기계전자 음향설비 및 제품, 플라스

9) 양림림, 국제경제협력, 세계지식출판사, 2010, p.81.

틱 고무 및 제품, 싼 금속 및 제품, 화학공업 및 공업제품, 광산물, 방직원료 및 제품들이다. 상술한 6대 유형 상품의 수입액이 중국이 한국에서의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의 86%로부터 2009년의 90%까지 상승 되었다.

<표 2-7> 중국의 대한국 주요 수입품 (단 위 : 억 달러)

주요 상품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등 수	금 액	등 수	금 액	등 수	금 액	등 수	금 액	등 수	금 액	등 수	금 액	등 수	금 액
방직원 료 및 제품	1	31.1	1	28.4	1	29.3	1	32.3	1	33.5	1	36.7	1	38.9
싼금속 및 제품	2	70.8	2	75.4	2	80.3	2	89.6	2	95.2	2	104.7	2	110.6
광산물	3	28	3	28.7	3	30.3	3	31.5	3	32.4	3	34.5	3	36.6
기계전 기음향 및제품	4	27.6	4	27.3	4	30.1	4	34.6	4	30.7	4	37.9	4	41.1
화학공 업유형 제품	5	26.5	5	6.4	5	8.6	5	9.3	5	92	5	10.0	5	11.1
식물유 형제품	6	20.3	6	19.6	6	20.5	6	23.6	6	24.5	6	26.7	6	28.9

자료: 시용해(2010), p.26.

<표 2-7> 에서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은 주요하게 한국의 경쟁력이 강한 업종에 집중 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 중 기계 전자제품, 음향 및 제품은 중국이 항상 한국에서 수입하는 주요제품으로서 2004년으로부터 줄곧 제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밖에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방직원료 및 제품과 플라스틱고무 제품의 금액도 상당히 큰데 이런 상품들은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절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집중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설명한다.

한국이 비교적 강한 상품 예를 들면 기계설비, 전자소비품, 통신설비 및 제품, 석유화학제품, 고급 방직원료 등은 경쟁력이 매우 강한데 이런 것 역시 한국이

이런 제품들에서 비교우세를 갖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2008년으로부터 방직원료 및 제품들은 이미 기계전자, 음향설 비 및 제품들에 의해 대체 되어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두 번째로 큰 유형의 상품에 속했고 플라스틱고무 및 제품들과 광산품의 순위는 2008년의 3위와 6위로부터 2009년의 2위와 5위로 뛰어 올랐다. 이는 근년에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구조에서 변화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두 나라의 수출입 상품의 구조가 원료형 으로부터 완제품으로 전변하고 낮은 부가가치로부터 높은 부가가치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표명한다.



제 3 장 한 · 중 무역구조 분석

제 1 절 가공단계별 무역구조

중간재를 수출하여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이를 다시 국내나 미국, EU등 제 3시장에 수출하는 대중국 교역 패턴이 지속되었다. 중간재 수출에서는 반제품의 비중이 감소되었고, 부품·부분품의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특히, 2002년 이후 대중국 부품·부분품 수출의 급증은 자동차 및 하이테크 전자통신 분야 기업의 현지 생산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반제품의 비중 감소는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둔화가 크게 작용하였다.¹⁰⁾

<표 3-1> 대중국 수출의 가공단계별 분포 (단위: %)

	1992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 품 목	100	99.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차 산품	0.5	0.5	0.4	0.4	0.5	0.5	0.6	0.6	0.7	0.8	0.8	0.9
중 간 재	88.7	80.0	84.9	83.4	76.1	76.5	79.7	82.0	79.3	76.8	76.0	75.3
반 제 품	84	72.7	65.2	64.0	52.0	46.2	43.9	42.0	43.3	41.3	40.0	39.6
부 품· 부 분품	4.7	7.3	19.7	19.5	24.1	30.3	35.8	40.0	35.9	35.6	34.1	34.0
최 종 재	10.8	19.1	14.7	16.2	23.4	23.0	19.7	17.3	20.0	22.3	22.8	23.1
자 분 재	7.3	12.6	9.9	11.1	18.5	18.6	16.2	14.0	16.7	19.4	19.8	20.4
소 비 재	3.5	6.5	4.8	5.1	4.9	4.4	3.5	3.3	3.3	2.9	4.4	4.8

출 처: <http://stat.kita.net> - 무역통계-품목별수출입

10) 정환우, '한·중간 교역구조 분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08.03, p.2.

<표 3-1> 대중국 수출의 가공단계별 분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중간 교역에서 중간재(반제품, 부품·부분품)는 1992년 88.7%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09년까지 소폭 하락하고 1992년 전 품목 중 10.8%를 차지한 최종재(자본재, 소비재)는 2009년까지 점점 증가세를 보였다. 2009년 대중국 수출 중 중간재 비중은 75.3%로 전년대비 3.9%p 하락한 반면, 최종재 비중은 23.1%로 同, 3.7%p 하락하였다.

중간재의 구성 중반제품의 경우 1992년 84%의 높은 비중에서 점점하락폭을 보이며 2009년에는 39.6%로 50%이상의 하락세를 보인 반면 부품·부분품의 경우 1992년 4.7%의 미미한 비중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2009년에는 34.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최종재 수출에서는 소비재의 비중은 1992년 3.5%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소폭의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가며 유지하다 2001년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세를 유지하며 2009년에는 4.8%로 하락하고, 자본재 비중은 1992년 7.3%의 비중을 차지하며 성장과 하락을 반복하다 2005년부터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최종재 중 자본재의 비중은 2005년 14.0%에서 2009년 20.4%로 증가한 반면, 소비재의 비중은 2005년 3.3%에서 2009년 4.8%로 하락하였다. 자본재 수출 비중 상승은 하이닉스반도체의 중국투자(강소성 무석), 현대 자동차 복경공장 증설 등에 따른 대중국 설비투자 확대에 기인한다.

<표 3-2> 대중국 수입의 가공단계별 분포 (단위: %)

	1992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 품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일차산품	37.1	14.2	16.1	12.9	12.6	12.5	9.1	9.4	6.3	6.3	5.8	5.2
중간재	50.3	64.4	50.3	48.9	48.2	48.0	52.8	54.7	57.4	59.8	60.1	62.2
반제품	48.6	58.8	34.4	32.0	31.4	29.9	34.2	35.3	36.5	38.4	39.2	39.6
부품·부분품	1.6	5.5	16.0	16.9	16.8	18.1	18.6	19.4	20.9	21.5	22.3	23.4
최종재	12.6	21.4	33.6	38.2	39.1	39.4	38.1	35.8	36.2	33.9	38.7	39.1
자본재	2.6	4.0	13.7	14.5	14.9	16.9	18.4	18.5	18.7	18.7	19.8	20.4
소비재	10.0	17.4	19.8	23.6	24.3	22.5	19.8	17.3	17.5	15.2	19.3	20.6

출처: <http://stat.kita.net> -무역통계-품목별수출입

<표 3-2> 대중국 수입의 가공단계별 분포와 같이 1992년 37.1%의 비중을 차지하던 일차산품은 1995년 대폭 하락한 이후 차츰 하락세를 유지하여 2009년에는 5.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중국 수입 중 중간재 비중은 1992년 50.3%의 비중으로 매년 소폭의 변화를 보인다 2009년 62.2%로 전년대비 2.1% 상승하였다. 특히 부품·부분품의 경우 1992년 1.6%의 미미한 비중을 보였으나 2000년에 16.0%로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2009년에는 23.4%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최종재 비중은 1992년 12.6%의 비중을 보였으나 2000년 33.6%의 큰 성장폭을 보인 이후 2003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유지하여 2009년에는 39.1%로, 2.6%가 하락하였다. 이는 자본재의 비약적인 성장과 소비재 하락세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중간재 수입의 경우, 반제품과 부품 모두 수입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최종재 수입의 경우 컴퓨터, 부품, 기타 전기·전자부품 등 자본재의 수입이 급증하였다.

<표 3-3> 가공단계별 대중국 무역수지 (단위: 억 달러)

	1992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 품 목	-10.7	17.3	56.5	48.9	63.5	132.0	201.8	232.7	209.0	189.6	192.6	208.0
일 차 산 품	-13.7	-10.0	-19.9	-16.5	-20.8	-25.6	-24.0	-32.5	-25.6	-32.2	-30.1	-33.6
중 간 재	4.8	25.8	92.3	86.7	96.8	163.5	240.6	296.4	271.7	250.3	260.0	239.0
반 제 품	4.2	23.0	76.3	73.8	68.9	96.6	117.5	123.7	123.8	92.8	98.9	115.6
부 품 · 부 분 품	0.7	2.8	16.0	12.9	27.9	66.9	123.1	172.7	147.9	157.6	168.3	174.2
최 종 재	-1.8	1.6	-15.8	-21.2	-12.5	-5.8	-14.7	-31.1	-37.0	-28.4	-29.7	-30.8
자 본 재	1.0	8.6	0.6	0.9	18.1	28.2	26.3	15.1	25.2	42.4	38.8	43.0
소 비 재	-2.8	-7.0	-16.4	-22.2	-30.6	-33.9	-41.0	-46.2	-62.2	-70.7	-75.6	-79.8

출 처: <http://stat.kita.net> -무역통계-품목별수출입

대중국 무역수지는 <표 3-3> 가공단계별 대중국 무역수지와 같이 중간재가 1992년 4억 8천만 달러에 2009년 270억 달러 흑자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던 무역수지가 2005년을 기점으로 하여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9년에는 전년대비 21억 달러로 축소되었다. 중간재를 이루고 있는 반제품의 경우 2008년을 기점으로 2009년 전년대비 31억 달러 축소하였으며 부품·부분

품의 경우에는 2005년을 기점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다 2009년 소폭 상승되었다. 최종재에는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03년을 기준으로 적자폭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소비재의 적자폭이 2000년부터 대폭 늘어나 2009년에는 79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였다. 하지만 자본재의 경우에는 2002년을 기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로 인하여 1차산품은 적자가 확대되었으나 최종재는 적자폭이 축소되었다.

제 2 절 기술수준별 무역구조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기술수준별 대중국 수출 구조 변화는 1992년에는 60.5%의 비중을 차지하던 중·저위 기술이 1995년 42.2%로 대폭 하락을 보인 이후 점차적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어 2007년에는 24.3%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고위기술의 경우에는 1992년 5.7%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중국의 산업경제 발전에 따라 2000년에는 20.6% 큰 폭의 상승을 보인 후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여 2009년에는 43.9%의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대중국 기술수준별 교역구조에서는 하이테크 품목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수출부분에서는 고위 기술 업종의 비중이 급상승하였으며 중·저위 기술 업종의 비중은 하락하였다.

<표 3-4> 한국의 기술수준별 대중국 수출 구조 변화 (단위: %)

	1992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고 위 기술	5.7	7.8	20.6	20.7	31.7	35.0	37.5	41.4	40.1	42.5	43.0	43.9
중 고 위 기술	16.2	26.1	23.3	24.6	25.3	27.0	27.2	26.9	27.7	28.3	28.9	29.3
중 저 위 기술	60.5	42.2	38.0	37.1	29.2	28.3	27.8	25.6	26.6	24.3	25.1	26.3
저 위 기술	17.3	22.4	17.5	17.2	13.4	9.3	7.1	5.9	5.4	4.6	4.1	3.8
기타	0.3	1.5	0.6	0.4	0.4	0.4	0.4	0.2	0.2	0.3	0.3	0.3

출처 : <http://stat.kita.net> -무역통계-품목별수출입

2007년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고위기술 업종과 중·고위기술 업종의 비중은 각각 42.5%와 28.3%로 전년대비 각각 2.4%p와 0.6%p 하락하였다. 품목별로는 전자통신 자동차 비중은 상승세, 섬유류, 철강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비중이 상승한 품목으로는 전자통신, 전자계측기기, 화학, 특수목적기계, 자동차, 석유기공·코크스이며 비중 하락한 품목으로는 철강, 플라스틱, 비철금속, 의류·섬유제품, 종이·인쇄, 가죽·모피 제품이다. 또한 비중이 보합한 품목으로는 일반기계,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이다.¹¹⁾

11) 정환우, 전게서, p.5.

<표 3-5> 기술수준별 분류 기준

기술수준	업종
저위기술	농부산물, 식품, 음료, 담배, 섬유, 의류 · 기타섬유제품 가죽 · 모피, 목재 · 죽 · 등 · 제품, 가구, 종이 · 인쇄, 기타 제조업
중 저위기술	석유가공 및 코크스,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품, 조선
중 고위기술	화학원료, 및 제품, 화학섬유, 일반 기계 산업, 특수목적기계 자동차, 전기기기 · 장비
고위기술	전자통신, 의료 · 정밀 · 광학기계, 우주항공, 의약품

출 처: 한국무역협회

<표 3-6> 한국의 기술수준별 대중국 수입 구조 변화 (단 위 : %)

	1992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고 위 기술	3.2	7.8	23.4	24.4	24.0	26.6	28.5	29.2	30.8	28.8	29.6	31.2
중 고 위 기 술	7.4	11.2	15.1	16.2	16.0	16.7	16.6	16.8	17.3	18.5	19.1	19.8
중 저 위 기 술	20.4	38.7	20.6	18.4	19.5	19.0	23.9	25.5	25.9	29.0	32.6	34.2
저 위 기술	42.9	35.4	28.3	31.0	30.3	27.8	25.5	22.9	21.9	19.5	18.3	17.5
기타	26.1	16.9	12.6	10.0	10.2	9.1	5.5	5.6	4.1	4.2	3.9	3.7

출 처 : <http://stat.kita.net> -무역통계-품목별수출입

<표 3-6> 한국의 기술수준별 대중국 수입 구조 변화와 같이 1992년 42.9%를 차지하던 저위기술의 비중은 차츰 감소세를 보이며 2009년에는 17.5%로 상당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고위기술의 경우 1992년 3.2%의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31.2%로 상당 수준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한국의 대중국 수입 중 · 고위기술 업종 비중의 상승세는 둔화되

었으며, 중·고위 및 중·저위 업종의 비중은 상승하였다. 또한 저위 업종 비중은 하락하였다. 2009년 중·고위기술 업종 비중은 1.6% 하락하였고 중·고위, 중·저위기술 업종의 비중은 4.3%가 상승하였다. 또한 저위 기술 업종 비중은 2.4% 하락하였다.

품목별로는 철강·특수목적기계 비중은 상승세가 지속되는 반면, 전자통신, 전기기기, 석유가공·코크스 등의 비중은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비중이 상승한 품목으로는 철강, 특수목적기계 [장기 상승세 품목: 전자통신, 기계류(일반기계), 자동차, 화학, 석유, 목재·가구, 정밀계측기기]이다. 비중이 하락한 품목은 전자통신, 전기기기, 장비, 비철금속, 음식료품, 담배, 섬유, 석유가공품, 코크스(장기 하락세 품목: 화학섬유, 화학, 비금속광물, 가죽, 모피)이다.¹²⁾

<표 3-7> 기술수준별 대중국 무역수지 (단위: 억 달러)

	1992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고위기술	0.3	1.4	8.2	5.1	33.5	64.5	102.2	143.5	128.8	167.3	173.5	193.2
중고위기술	1.5	15.6	23.6	23.1	32.3	58.3	86.5	101.6	108.9	115.5	119.3	120.5
중저위기술	8.4	9.9	43.9	43.1	35.6	57.9	67.9	60.2	58.6	60.2	58.5	16.6
저위기술	-11.4	-5.7	-4.0	-10.0	-20.8	-28.2	-40.1	-52.1	-68.5	-84.9	-90.1	-98.9
기타	-9.7	-3.8	-15.1	-12.3	-17.0	-20.5	-14.7	-20.4	-18.7	-24.7	-24.0	-25.2
전체	-10.7	17.4	56.6	48.9	63.5	132.0	201.8	232.7	209.0	189.6	200.3	201.6

출처 : <http://stat.kita.net> -무역통계-품목별수출입

<표 3-7>기술수준별 대중국 무역수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년 약 11억 달러 가량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던 저위 기술은 그 적자폭을 늘리며 2009년에

12) 정환우, 전계서, p.15.

는 약 25억 달러 가량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다. 반면 중·저위, 중·고위, 고위 기술에서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특히 중·고위와 고위 기술은 1992년 각각 1억 5천만 달러와 3천만 달러의 적은 수준의 흑자 기록을 보이던 것이 큰 성장 폭을 보이며 2009년에는 각각 120억 5천만 달러, 19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큰 성장 폭을 보였다. 2009년 고위·중 고위 기술 업종에서 대중국 흑자는 전년대비 각각 21억 달러, 7억 달러 증가한 반면, 중·저위기술 업종에서 흑자는 42억 달러 감소하고, 저위기술 업종에서 적자 16억 달러 증가 되었다.

제 3 절 한국의 대중국 지역별 무역구조

한국의 대중국 지방별 교역 분포를 보면 강소성(江蘇省)¹³⁾이 최대 수출 대상이자 수입대상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강소성(江蘇省)은 2005년부터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지역으로 부상했으며, 2009년 강소성(江蘇省)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5%이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이다.

최근 들어 한국의 대강소성(江蘇省)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메모리, 휴대폰 부품, 컴퓨터부품, LCD, 평판압연강 등 IT·전자 분야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한국 재수출이 대강소성(江蘇省) 수입을 선도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산둥성(山東省)¹⁴⁾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보다는 수입에서 더 큰

13) 2005년 인구당 총생산액이 3000달러 이상에 이르렀다. 산업구조는 더욱 최적화되었으며, 첨단 기술산업이 대폭 성장하였고 전통산업은 혁신과정에서 발전하였으며 현대적 서비스업의 발전이 눈에 띄게 가속화되었다. 소유제 구조는 지속적으로 조절되었다. 비공유제 경제가 창출한 증가액이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5%에 이르렀고 그 중에서 사영개인경제의 비중은 34.2%에 이르러 각각 전년 대비 4.8퍼센트, 1.9퍼센트씩 증가하였다. 기업그룹의 발전을 지원하여 영업액의이 100억 위안 이상인 기업은 45개로 전년 대비 12개 업체가 증가하였다. 도시화는 한층 더 진행되어 2005년 말에 강소성의 도시화수준은 50.5%에 이르러 전년 대비 2.3퍼센트 증가하였다. 강소성 북쪽과 강소성 중부의 일부 주요 경제 지표 증가폭은 강소성 전체의 평균 수준을 초과하였다. /중국경제연감편찬위, '2009 중국경제연감', 2009.12.

14) 2005년 현재 기본적인 통계에 따르면 산둥성의 전체 생산액(GDP)은 18,468.3억 위안으로 전대 가격으로 환산하면 전년 대비 15.2%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 1차 산업의 증가액은 1,927.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하였고 2차 산업의 증가액은 10,620.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7.9%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 공업의 증가액은 9,562.9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하였다. 3차 산업의 증가액은 5,920.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하였다. 3차 산업의 비중은 10.4:57.5:32.1이었다. 경제가 더욱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보여 2005년도 4개 분기 전체 생산액 증가 폭의 편차는 0.5퍼센트 이내이었다. 인구당 전체 생산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9년 산둥성(山東省)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8%를 차지하였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8%이다. 이에 따라 대산둥성 교역이 우리의 대중국 무역흑자 축소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3-8> 한국의 대중국 성/시별 수출 (단 위 : 백만 달러 %)

순 위	성/시	2006		2007		2008		2009	
		수출액	구성비	수출액	구성비	수출액	구성비	수출액	구성비
1	강소성	14,392	23.2	22,231	28.9	22,985	25.6	27,537	26.5
2	광둥성	14,510	23.3	16,221	21.1	20,527	22.9	23,326	22.4
3	산둥성	7,117	11.4	9,243	12.0	10,549	11.7	12,260	11.8
4	상해시	7,711	12.4	8,053	10.5	9,582	10.7	11,708	11.3
5	천진시	5,297	8.5	6,403	8.3	7,749	8.6	9,136	8.8
6	절강성	3,281	5.3	3,844	5.0	5,463	6.1	6,069	5.8
7	북경시	3,469	5.6	4,406	5.7	5,786	6.4	5,895	5.7
8	요년성	2,065	3.3	2,165	2.8	2,336	2.6	2,674	2.6
9	북건성	2,226	3.6	2,067	2.7	2,341	2.6	2,488	2.4
10	하북성	317	0.5	415	0.5	473	0.5	603	0.6
11	사천성	159	0.3	198	0.3	355	0.4	437	0.4
12	안휘성	293	0.5	309	0.4	297	0.3	318	0.3
13	호북성	137	0.2	181	0.2	240	0.3	255	0.2
14	길림성	153	0.2	169	0.2	168	0.2	207	0.2
15	강서성	54	0.1	59	0.1	74	0.1	182	0.2
16	광서성	122	0.2	103	0.1	118	0.1	157	0.2
17	호남성	311	0.5	262	0.3	136	0.2	131	0.1
18	하남성	47	0.1	44	0.1	82	0.1	129	0.1
19	흑룡강성	228	0.4	229	0.3	190	0.2	114	0.1
20	산서성	35	0.1	42	0.1	57	0.1	111	0.1

출 처 : <http://stat.kita.net> -무역통계-품목별수출입

액은 20,044위안으로 절대가격으로 환산하면 전년 대비 14.5% 증가하였다. /중국경제연감편찬위, '전계서', 2009.12.

<표 3-9> 한국의 대중국 성/시별 수입 (단 위 : 백만 달러 %)

순위	성/시	2006		2007		2008		2009	
		대중수 입액	비중	대중수 입액	비중	대중수 입액	비중	대중수 입액	비중
1	강소성	3,602	13.0	5,420	15.4	7,611	17.1	10,635	18.9
2	산둥성	5,580	20.1	6,690	19.1	8,866	19.9	10,534	18.9
3	광둥성	4,167	15.0	4,505	12.8	4,588	10.3	5,659	10.1
4	요녕성	2,364	8.5	3,067	8.7	3,371	7.6	4,791	8.5
5	상해시	2,340	8.4	2,853	8.1	3,707	8.3	4,539	8.1
6	절강성	1,686	6.1	2,084	5.9	3,215	7.2	4,039	7.2
7	천진시	1,670	6.0	2,095	6.0	3,052	6.8	3,911	7.0
8	하북성	871	3.1	1,200	3.4	1,375	3.1	2,313	4.1
9	복건성	499	1.8	657	1.9	1,055	2.4	1,333	2.4
10	북경시	555	2.0	788	2.2	1,181	2.7	1,168	2.1
11	산서성	865	3.1	915	2.6	846	1.9	1,062	1.9
12	하남성	641	2.3	862	2.5	939	2.1	849	1.5
13	섬서성	339	1.2	577	1.6	541	1.2	737	1.3
14	길림성	374	1.3	634	1.8	518	1.2	709	1.3
15	흑룡강성	245	0.9	372	1.1	389	0.9	536	1.0
16	호북성	290	1.0	512	1.5	480	1.1	506	0.9
17	호남성	173	0.6	251	0.7	324	0.7	422	0.8
18	내몽고	366	1.3	346	1.0	270	0.6	399	0.7
19	안휘성	142	0.5	228	0.6	447	1.0	375	0.7
20	강숙성	222	0.8	215	0.6	558	1.3	365	0.7
21	사천성	177	0.6	255	0.7	281	0.6	300	0.5
22	강서성	63	0.2	71	0.2	181	0.4	207	0.4
23	광서성	102	0.4	110	0.3	135	0.3	181	0.3
24	영하자치구	87	0.3	49	0.1	146	0.3	133	0.2
25	귀주성	92	0.3	81	0.2	72	0.2	108	0.2
26	중경시	87	0.3	59	0.2	83	0.2	101	0.2

출 처 : <http://stat.kita.net> (중국 해관통계)

권역별 교역구조에서도 동부 연해 지역(상해시, 강소성, 절강성)이 한국의 최대 수출 및 수입 대상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2009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에서 동부 연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3.6%, 34.2%이다.

반면 산둥성(山東省)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 산둥성(山東省)이 대중국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8%와 18.8%를 차지하였다.

<표 3-10> 한국의 대중국 권역별 수출 비중 변화 (단 위 : %)

	2006	2007	2008	2009
동부연해	40.8	44.4	42.3	43.6
남부연해	26.9	23.8	25.5	24.8
북부연해	14.6	14.6	15.6	15.0
산동	11.4	12.0	11.7	11.8
동북3성	3.9	3.3	3.0	2.9
장강중류	1.3	1.1	0.8	0.9
서남	0.7	0.5	0.7	0.7
황하중류	0.3	0.2	0.3	0.3
서북	0.0	0.1	0.1	0.0

출 처 : <http://stat.kita.net>(중국 해관통계)

<표 3-11> 한국의 대중국 권역별 수입 비중 변화 (단 위 : %)

	2006	2007	2008	2009
동부연해	27.4	29.5	32.6	34.2
산동	20.1	19.1	19.9	18.8
북부연해	11.1	11.6	12.6	13.2
남부연해	16.8	14.7	12.7	12.5
동북3성	10.7	11.6	9.6	10.8
황하중류	8.0	7.7	5.8	5.4
장강중류	2.4	3.0	3.2	2.7
서남	2.0	1.9	1.6	1.5
서북	1.5	0.9	2.0	1.0

출 처 : <http://stat.kita.net>(중국 해관통계)

제 4 장 한·중 무역불균형 현황 및 원인

제 1 절 한·중 무역불균형 현황

1. 무역수지와 국민경제 영향

최근 산업의 세계화 현상으로 국제무역이 확대되고 이는 각국의 무역수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역수지는 환율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무역흑자 및 적자는 그 규모의 크기에 따라 일국의 경제 흐름에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각국은 무역규모의 확대에 따른 무역수지의 불균형(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역 상대국에 관세·비관세 장벽에 의한 무역마찰을 야기하거나 환율의 절상 압력 등으로 상대국의 수출을 억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게 되어 결국 국제무역 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무역수지는 그 나라가 행한 재화 및 용역의 수출입을 모두 포함시켜 계산하며 대부분 특정 국가의 화폐단위를 이용해서 표시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달러나 영국의 파운드 등이 많이 사용된다. 무역수지는 보다 큰 경제 단위인 국제수지의 한 부분을 이룬다. 국제수지란 한 국가와 그 밖의 다른 나라들 사이에 이루어진 경제적 거래의 총계를 말한다. 국제수지를 이루는 항목들은 무역수지 외에 자본이전(이자율이 높은 나라로 이동하는 화폐의 흐름), 차입금 상환, 여행자 경비, 항공료, 보험료 및 기타 지불 등이 있다.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태를 유리한 무역수지 또는 무역흑자라 하고, 반대로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상태를 불리한 무역수지 또는 무역적자라고 한다. 16~18세기 유럽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중상주의 경제이론가들에게는 유리한 무역수지가 절대적인 필요조건이었다. 그들이 무역흑자를 유지하기 위해 제안한 해결방안은 바로 식민지 건설이었다. 식민지는 모국의 생산물을 사들이는 시장인 동시에, 당시 국부와 국력에 필수 요소라고 여겨졌던 천연자원, 특히 귀금속을

수출하는 원료 공급지였다.

무역수지에 대한 18세기 중반의 고전학과 경제이론에 따르면, 한 나라가 외국 상품을 구입할 재원을 마련하거나 수출 거래를 하기 위해 무역수지나 국제수지를 반드시 균형 또는 흑자 상태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 뿐만 아니라 흑자를 지속하는 것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다. 흑자란 결국 가용 자원이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재화·용역의 구입이나 생산에 충분히 사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 국가 혹은 한 무리의 국가들이 흑자를 축적할 경우 그 흑자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나라에서는 경제 상황에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 1970~80년대에 걸쳐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이 급격한 유가 인상을 단행했을 때도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되었다. OPEC의 석유는 달러로 거래되었기 때문에 석유 수입국들은 석유 매입 자금으로 달러를 확보해야 했던 반면, OPEC 회원국들은 막대한 양의 달러 잉여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3세계나 개발도상국들은 아주 중요한 상품을 독점하지 않는 한 무역흑자를 유지하기가 극히 어렵다. 특히 경기침체에 그들은 수입 완제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지불하면서 자신들이 수출하는 천연자원이나 반제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을 인하해야 하는 등 매우 불리한 교역조건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남북무역이 무역불균형을 초래하는 전형적인 형태이나 각국의 산업구조와 기술격차, 무역장벽 등도 무역불균형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표 4-1> 한국 주요 교역국 대상 2009년 무역수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1-10	수출	수입	무역수지		11-20	수출	수입	무역수지
중국	69,437	43,931	25,506	파나마	3,807	826	2,981	
홍콩	15,745	1,228	14,518	그리스	2,955	46	2,909	
마셜군도	8,168	40	8,128	슬로바키아	2,549	50	2,499	
미국	30,806	23,418	7,389	네덜란드	3,640	1,609	2,031	
멕시코	5,947	790	5,157	터키	2,165	343	1,822	
싱가포르	11,128	6,642	4,486	필리핀	3,684	2,176	1,508	
라이베리아	3,746	0	3,745	바하마	1,163	0	1,163	
베트남	5,688	1,967	3,721	벨기에	1,881	743	1,139	
폴란드	3,393	187	3,206	헝가리	1,313	248	1,066	
인도	6,365	3,192	3,173	몰타	1,126	105	1,021	

자료: 한국무역학회 “2010국제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 2010.12

2. 한·중 무역의 확대와 무역불균형 초래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래 양국 무역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1992년 양국 간의 무역액은 50.3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5년은 1119.3억 달러에 이르렀다.¹⁵⁾ 2007년에는 1599억 달러에 수교 당시의 약 32배를 기록하였고 양국 무역은 계속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 2008년에는 1861.1억 달러에 달하여 전년대비 16.2%나 증가하였다.

수교 이후 한·중 간 무역의 발전과정을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단계(1992년~1997년)는 제1확대기로 양국 무역이 간접 무역에서 직접무역으로 전환되고 무역규모도 대폭 늘어난 시기이다. 둘째 단계(1998년~2001년)는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게 되고, 중국도 경기불황을 겪으면서 양국 무역이 소강상태를 거치게 된다. 셋째 단계(2002년~2005년)는 제2의 발전기로서 양국 간

15) “중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 이래 양국 무역액 1천억 달러를 돌파하는데 30년이 걸렸으나 한중 양국 무역은 불과 13년 만에 1천억 달러에 도달했다”.

(http://www.gb.cri.cn/1321/2005/11/29/1327@800288_1.htm 를 참조)

투자와 무역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무역상품구조에서는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고도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넷째 단계(2005년 하반기~현재)는 한·중 무역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시기이다.

현재 한국은 이미 중국의 제3위의 무역 상대국이 되었고 중국은 한국의 제1위의 무역 상대국이 제1위의 수출시장이 되었다. 양국은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중 수교 15년 간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약 34조 원의 GDP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2006년 중 대중국 순 수출(수출-수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연평균 0.46% 이었고 특히 내수부진으로 경제성장을 수출에 의존하던 2003년~2005년 시기에 대중국 무역은 한국의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양국 무역 총액은 2010년에는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무역이 이렇게 신속히 발전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한·중 양국은 세계에서 모두 경제적인 활력이 높은 국가이고 고속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한·중 양국 간 자원, 노동력, 사업 구조 상품 시장, 자본, 기술 및 기업 관리 등의 방면에서 서로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양국 기업은 양국 체제 개혁과 시장개방의 성과를 나누고 있다.¹⁶⁾

마지막으로 양국 간의 활발한 투자가 있었던 점이다. 투자는 양국 무역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중 수교이후 한·중 무역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한·중 간 무역수지의 격차도 점차 확대되었다.

한·중 수교 이후의 무역관계 발전은 대체로 4개 단계로 나누어 고찰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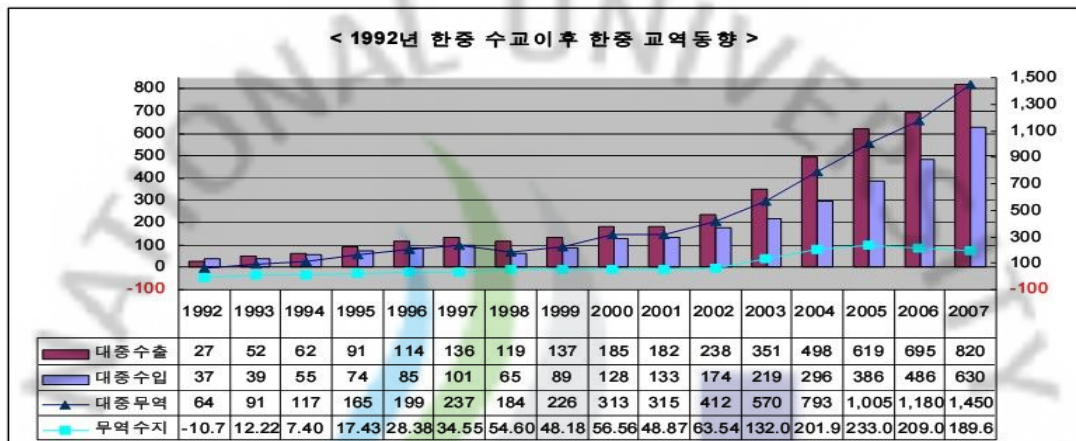
가. 제 1단계

제 1 확대기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부터 1997년에 발생한 한국의 외환

16) 국민경제 [國民經濟, national economy] : 경제활동 전체를 국가단위로 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한 것. 2007. 4. p.24.

위기 이전까지 양국 간 교역이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으로 전환되고, 교역규모도 대폭 늘어난 시기이다. 1992년 8월에는 양국 간 수교가 이루어지고, 동년 9월에는 한·중 간 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이러한 국교 정상화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그 동안 해소 되었다.

<그림 4-1>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중 교역동향 (단위: 억 불)



자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2007.05

양국 간 교역의 장애요인으로 존재하던 중국의 한국 상품에 대한 차별관세 문 제도 1992년 5월에는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면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 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또한 1992년 2월 덩소평의 남순강화(南巡講 話)¹⁷⁾을 계기로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대외무역, 외국인투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 라 양국 간 직접 교역액은 1991년 44억 달러 1997년에는 237억 달러로 증가하 여 6년간 연평균 32.2%의 증가율을 유지하였으며, 홍콩을 경유한 간접교역을 포 함할 경우 68억 달러에서 288억 달러로 연평균 27.3%씩 증가하였다.

17) 남순강화(南巡講話)은 덩샤오핑(鄧小平, Deng Xiaoping)이 1992년 1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우한(武漢),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상하이(上海)등을 시찰하고 중요한 담화를 발표한 일이다.

나. 제 2단계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 이후부터 중국의 WTO 가입이 이루어진 2001년까지의 기간으로서, 이 기간 중 한국은 1997년 말 심각한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겪게 되고, 중국도 경계불황을 겪으면서 양국 간 교역이 소강상태를 거치게 된다. 세계적인 경기호황과 한국의 벤처 붐 등으로 2001년에는 대중국 수출을 포함한 총수출이 급증하였지만, 2001년에는 미국의 경기침체 등에 따라 IT부문이 급속히 위축되어 세계적인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대외무역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 기간 중 양국 간 직교역이 1997년 237억 달러에서 2001년 315억 달러로 연평균 증가율이 7.4%로 크게 둔화되었으며,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 역시 29억 달러에서 38억 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6.8% 증가한 데 그쳤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도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의 상대적 중요성은 계속 상승하였다, 2001년의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총수출의 12.0%, 대중국 수입은 총수입의 9.4%를 차지하고 1997년 비해 각각 2%포인트 이상 상승하였다.

다. 제 3단계

중국의 WTO 가입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2005년까지의 제2의 발전기로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교역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교역상품구조에서도 하이테크산업을 중심으로 고도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중국이 2001년 말 WTO에 가입하면서 대외개방이 더욱 진전되고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불황에서 벗어나면서 중국의 대외무역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양국 간 직접적인 교역액은 2001년 315억 달러에서 2005년 1,006억 달러로 연평균 33.7%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2005년에 한국 총수출의 21.8%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총수입의 15%를 차지하는 제2위의 수입대상국이 되었다.

라. 제 4단계

2005년 하반기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단계로서 한·중 교역이 안정화단계에 진입한 시기이다. 2005년 하반기부터 한·중 양국무역의 급등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2002년~2004년 중 연평균 36.1%에 달했던 양국 간 교역증가율이 2005년에는 26.7%로, 2006년에는 17.4%로 점차 둔화되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 하락세가 두드러져 대중국 수입증가율 하회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2005년 하반기 이후 양국 간 교역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원인은 양국 간 무역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의한 대중국 수출유발 효과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완제품뿐 아니라 중간재 산업에서 중국의 생산이 확대되면서 수입대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대중국 수출이 이전과 같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 IT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중화학공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그동안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주도해온 부품과 소재분야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2005년 하반기 이후 한국의 대중국 교역에 있어 수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고, 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율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양국 간 무역불균형이 축소되는 구조가 정착되는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8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914억 달러로서, 전년대비 11.5% 증가했다. 대중국 수입은 769억 달러이며, 무역 흑자는 145억 달러로서 각각 전년대비 감소 추세이다.¹⁸⁾

이처럼 한·중 간 무역확대에 따라 산업구조와 기술격차, 무역장벽 등으로 무역불균형이 초래됨으로써 양국 간에 통상마찰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18) 謝朝陽, "對國際經濟與專業特色建設的思考", 論文網 2009. 10. p.1.

제 2 절 한·중 무역불균형의 원인

중국과 한국이 외교관계를 건립한 이래, 양국의 무역 주요하게 민간의 소량적인 무역으로 표현되며 중국 측의 상품수출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1992년 이전, 중국과 한국의 무역액은 그리 많지 않았으며 더 많이는 중국 측의 흑자를 위주로 하였다.

그러나 1992년부터 양국이 외교관계를 건립하고 잇따른 무역협력의 빠른 발전은 양국 무역 총액을 부단히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무역 역조 수치도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은 양국의 무역협력과정에서 가장 주요하고 돌출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표 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중 무역역조의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 무역역조액은 2001년 두 나라가 외교관계를 건립할 당시의 108.7억 달러로 부터 줄곧 상승하여 2004년에는 344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그 후로 매년 마다 증가세를 보였는데 2007년에는 623억 달러에 달했다. 2008년까지 중국이 한국에 대한 무역역조액은 712.5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전년도에 비해 75.8% 증가하여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한 상품 총액의 49.6%를 차지하였다. 2009년 말까지 중국 측의 역조 합계는 이미 2504.5 달러에 달했다.¹⁹⁾ 현재 한국은 대만 다음으로 중국의 두 번째 가는 무역 역조 국이다.

19) 이승신, 양편섭, “한국의 대중국 교역 동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p.58.

<표 4-2> 한·중 무역역조 추이 (단위 : 억 달러)

년 도	한·중 무역액	중국 수출액	중국 수입액	무역역조	중국 무역역조 합계
2001	359.1	125.2	233.9	-108.7	-740.2
2002	440.7	155	285.7	-130.7	-870.9
2003	632.4	201	431.4	-230.4	-970.6
2004	900.7	278.2	622.5	-344.3	-1314.9
2005	1170.4	338	812.6	-440.2	-1524.7
2006	1430.1	358.1	962.4	-528.1	-1744.4
2007	1560.4	398	1102.2	-623.6	-1964.2
2008	1780.2	458.3	1192.2	-712.5	-2244.2
2009	2010.1	513.2	1342.1	-807.5	-2504.5

자료 : 중국해관의 연간검사와 국제무역 여러 기간 수치들을 정리

한·중 무역 역조의 원인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과 시각으로 분석을 진행하여야 한다. 중국경제의 빠른 성장은 수입을 확대해야 하는데 한국으로부터 수입량이 확대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왜서 이런 거대한 무역역조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으로 중국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빠른 확대를 보였지만 한국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고 모든 방법을 다해서 중국 제품이 한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았다.

상대적으로 볼 때 중국의 시장용량은 비교적 크기 때문에 더 많은 한국 제품들을 소화해 낼 수 있지만 한국의 시장용량은 작아서 많은 중국 제품들을 받아들이는 힘들다. 또 한국정부는 무역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는 방면에서 유력한 조치 예를 들면 높은 관세를 삭감하거나 중국 제품에 대한 차별성을 없애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은 중국 측이 역차를 갖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다른 문제들도 존재하여 현재의 한·중 무역 역차의 국면을 조성시켰는데 본 연구는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방면의 문제들의 있다고 본다.

1. 중국 무역정책의 변화

1990년대 초에 중국의 대외무역 체제개혁은 더 깊은 단계로 들어섰고 중국정

부는 개혁역량이 비교적 큰 정책들을 실시하였다. 1991년 국가는 대외무역 수출에 관한 보조금을 취소하였고 대외무역회사들은 스스로 손실을 책임져야 하였으며, GATT에서 중국의 제약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중화국민공화국 수출입관세 조례>와 <해관수출입세칙>을 발표하였다.

1992년부터는 전부의 수입대체명세서를 취소하였고 1992년 4월에는 16가지 상품의 수입 조절 세를 취소하였으며 대폭으로 관세를 낮추기 시작하였는데 관세수준은 42.5%로부터 하락하여 1992년 말에는 39.9%, 1993년 말에는 36.6%로 하락하였으며, 1994년 말에는 35.9%로 1995년 말에는 35.3%, 1996년 말에는 23%까지 하락하였고, 2001년 1월, 재차 15.3%로 하락 되었다.²⁰⁾

1996년 1월 중국이 대폭으로 수출 세금을 돌려주는 비율을 조정한데 의하면 농업가공품은 10%로부터 6%로 조정 되었으며 공업품은 14%로부터 9%로 하강되었는데 이는 어떤 기업들의 수출 적극성에 영향주어 1996년에 한국에 대한 수출이 12%밖에 증가되지 않게 하였고 이는 전년도에 비해 거의 40% 하락 되었다.²¹⁾

일련의 개혁조치들은 총체 상에서 중국의 대외무역의 발전을 자극하였지만 일부 대외무역 기업들이 이런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여 이런 정책들이 한·중 무역에 대한 효과는 수입이 수출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초래하였는데 이는 한·중 무역역조가 부단히 급증되게 하였다.

2. 한·중 무역불균형의 특징

첫째, 한·중 무역 불균형은 전형적인 수직형이 아니라 수직형을 위주로 수평형과 교차되는 무역구조이다. 20세기 90년대 초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출에서 농산품과 원자재가 40%를 차지하고 그 외 60%는 공업제품에 속했으며 한국은 주요 중국에 공업제품을 수출하였다.

그러나 90년대 말부터 중국이 한국에 대한 공업품 수출은 75%를 차지하였고 한국이 중국에 대한 공업품 수출도 85%를 차지하였다. 그 후 공업제품 무역은

20) 유현우, "한·중 무역문제에 관한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2008. p.54.

21) 유현우, 전제서, 2008. p.55.

두 나라 무역수량의 급격한 증가에 주도적 작용을 일으켰다. 이것은 한·중 양국의 무역구조는 이미 전통적인 자원조건으로부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수직산업내의 무역으로 전화되고 있으며 제품의 다양화와 제품의 질을 중시하고 있음을 표명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한국에 가격이 같은 업종의 제품들에 비해 낮고 품질이 못한 것을 수출하지만 한국은 중국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같은 업종의 제품들에 비해 높고 품질이 좋은 것을 수출한다. 통계에 의하면 10여 년 동안 중국이 한국에 수출한 상품은 차례로 방직제품, 패션, 곡물, 수산물, 기름완제품, 신, 면직물, 비단, 컨테이너, 강철재료, 채소와 플라스틱 등이 있다.

방직제품, 패션 등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밀집형제품은 줄곧 1,2위를 차지하였고 자본 집약형에는 컨테이너, 강철 재료와 플라스틱만이 포함 되었으며 그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다. 그러나 수입에서 앞10자리를 차지하는 상품은 플라스틱, 방직제품, 강철재료, 기름완제품, 종이, 기계가전제품, 강철재료, 알루미늄재료, 집적회로와 신 등이 있는데 자본 혹은 기술 집약형 제품에는 컴퓨터, 집적회로, 자동차, 선박, 플라스틱과 강철재료 등 6가지가 있다.

역차가 존재한 1992년을 예로 보면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출상품 중에서 농산품과 광산물이 총 수출의 47.2%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총수출 중에서 초급제품이 차지하는 비중-20.1%를 훨씬 초과하였다. 1999년 중국이 수출한 제품 중에서 초급제품은 10.2%, 공업제품은 89.8%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수출상품 중에서 초급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0.5%에 달했다²²⁾.

2002년 중국의 대외무역수출 중에서 초급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75%로 낮아진 정황에서도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출제품 중에서 초급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의연히 20%이상에 달했다. 그중 60%이상은 방직, 패션, 전제품 조립, 목가구, 신과 가죽 등 노동 집약형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수출하는 제품은 거의 가공무역에 속했는데 가공비 외에 다른 이익은 거의 없었다.²³⁾

또한 국제시장, 특히는 아시아시장에서 초급제품과 노동밀집형제품은 가격탄력성이 크고 경쟁이 특별히 격렬하며 한국 시장 용량의 한계까지 가해졌는데 이런

22) 유현우, 전제서, p.56.

23) 최 려, 한·중 교역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강원대 대학원, 2008. p.59.

것을 보면 한·중 무역이 엄한·중 역차를 낳은 원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만약 한·중 두 나라의 이러한 무역구조를 계속 유지시키면 중국 제품의 수출에 대해서는 아주 불리하다. 이런 수직분업을 기초적 특징으로 하는 수출입 상품구조는 한·중 무역불균형이 점점 더 거세진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이다.

둘째, 상품의 수요구조의 차이는 무역역조를 조성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양국의 경제가 부동한 발전단계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의 비교우세 원리에 따르면 : 국제 분업 중에서 높은 수준에 있는 나라는 낮은 수준에 있는 나라들이 영원히 그 수준에 머물기를 바라며 이런 분업이 고정하기를 바란다. 한·중 양국의 전통적 무역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이 이론의 요지에 부합된다.

앞에서 논술했듯이 20세기 90년대 이래 한·중 두 나라의 수출입 상품구조는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즉 중국이 한국에 대량의 초급제품 혹은 기술함량이 낮은 제품과 부가가치가 낮은 자원 집약형과 노동 집약형 공업제품 예를 들면 원재료, 농·광산물, 방직복장, 가죽 등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상품 역시 기술 집약형과 자금 집약형 상품을 위주로 하는데 특히 한국의 화학공업제품, 기계전기음향설비 및 부품 등 높은 기술함량의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상품에는 주요하게 높은 부가가치의 자본, 기술 집약형 제품 예를 들면 화학공업제품, 전기통신설비, 기계전기제품 등이 있고 수입하는 것 역시 낮은 부가가치의 자원 집약형과 노동 집약형 제품을 위주로 한다. 설사 한국이 중국에서 일부 전기제품을 수입해 간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대부분 부품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기술단계 차이의 기초에서 건립된 상품구조는 한·중 두 나라사이의 무역이 필연적으로 역차가 출현되게 하였으며 역차의 수량도 그들 사이의 무역이 증가됨에 따라 무단히 확대될 것이다.

셋째, 수출입교차가 비교적 큰 방직제품을 비교하더라도 중국의 수입량은 수출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방직품은 중국의 수출상품 중에서 가장경쟁력을 띤 기동제품이지만 한국에 대한 무역에서는 우세를 차지하지 않는다. 2008년 중국의 방직원료 및 제품, 기계전기음향설비 및 부품, 짠 금속, 광산물, 화학공업유형의 제품과 농사품 등 6대 유형의 상품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출총액의 77.9%를 차지하였다.²⁴⁾

24) 이신(李 琴), "한·중 간 무역마찰의 현황과 대응방안" 청주대 대학원. 2009. 6. p.53.

그러나 이런 분야에서 중국과 한국 사이의 수출입 상품 교차가 비교적 크고 경쟁관계도 비교적 뚜렷하다. 예를 들면 2007년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출입한 방직원료와 제품은 각각 28.4억 달러와 27.1억 달러이고 2008년에는 26.5억 달러와 34.2억 달러이다.²⁵⁾ 그리고 방직원료 및 제품은 중국에서 가장 경쟁력을 띤 상품으로서 비록 근년에 수출이 많은 증가를 보였지만 한국의 기계전기음향설비 및 부품이 중국에 대한 수출을 따라잡지 못하였다. 2007년 우리가 한국에 대한 무역역조는 108.7억 달러이고 2008년에는 130.7억 달러의 역차를 낳았는데 주요하게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한 기계전기음향설비 및 부품과 화학공업제품에서 왔으며 그것들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모든 역차와 맞먹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뚜렷한 예증이다.²⁶⁾

3. 중국의 전반적 대한국 수출 여건 미비

일반적으로 한·중 양국은 무역협력에서 건실한 기초가 있다고 간주된. 두 나라의 지리적 위치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며 정보교류와 인원교류가 빠르며 문화습관과 전통적 관념이 비슷하고 경제구조에서 비교적 강한 상호 보충성을 띠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런 요소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출을 명확히 추진시키지 못하였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6.2억 달러로부터 622.5억 달러로 상승하였으며 순수한 증가는 596.3억 달러에 달했는데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출액은 24.0억 달러에서 278.2억 달러로 근근이 254.2억 달러밖에 증가되지 않았다²⁷⁾.

그리고 2000년 ITC(international trade center)이 중국이 세계의 기타국가 혹은 전체 수출잠재력에 대한 모의결과에서 중국이 한국(그리고 일본, 인도 등 8개 나라)에 대해서 "무역부족"상태에 처해 있다고 나타났다. 국내 기타 인원들의 연구결과에서도 한국은 중국수출무역이 부족한 국가이며 4가지 유형의 제품(노동력과 자원 집약형 제품, 저급기술 집약형제품, 중급기술 집약형제품과 고급기술

25) 이학춘, "한·중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07.6.p.34.

26) 임영모, 복득규, "韓·中 무역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8.2.p.43.

27) 이신(李 璆), "한·중 간 무역마찰의 현황과 대응방안" 청주대 대학원. 2009.6.p.56.

집약형제품)에서 중국은 한국과 "무역부족"의 상태를 나타냈다고 한다.

그러므로 총량요소의 분석을 놓고 볼 때 중국이 한국의 전체에 대하여 수출 부족을 나타 낸 것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무역역조를 초래한 주요원인중의 하나이다.

4. 한국의 무역정책 우위요소

20세기 60년대 중기 한국이 "수출제일", "무역입국"의 기본국책을 실시한 이래 여러 가지 효력 있는 조치들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에 힘썼으며 재빨리 국내에서 국민경제의 "외향시장순환체계"를 형성시켰다. 그러나 경제실력의 증장과 경제지위의 제고로 한국은 20세기 90년대로부터 원래의 국민경제 외향시장체계에 전략조정을 실시하여 이 체계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는데 이것은 한·중 무역역조의 형성과 확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일으켰다.

첫째, 한국이 수출하는 국가와 지역의 폭이 넓어졌다. 최초의 3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부터 20세기 90년대, 전 세계의 216개 나라와 지역으로 발전하였다. 과거의 일부 반드시 중국에서 수입해가는 제품은 비교이익원칙에 의거하여 더 합당한 국가로부터 수입해갔다. 이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두 나라사이 무역역조의 부단한 확대를 초래하였다.

둘째, 주요수출시장의 국가구조가 변화를 가져왔다. 20세기 80년대 이전의 미—한—일 세 나라를 핵심으로 하고 독일, 영국과 중국의 홍콩과대만이 가해진 구조는 20세기 90년대 중기에 형성된 일본, 한국, 미국, 유럽동맹, 중국 등 다변무역체제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중국경제의 전례 없는 발전과 대외개방의 철저한 진행으로 한·중 두 나라의 무역협력은 빠른 발전을 가져왔으며 한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액은 더 뚜렷이 증가하였다. 한·중 무역액은 1992년에는 50.2억 달러였지만 2004년에는 900.7억 달러로 증폭은 18배에 달했다. 그리고 같은 시기한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액은 26.2억 달러와 622.5억 달러로 증폭은 23.7배에 달했는데 이는 양국 무역총액의 증장보다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일약 중국을 한국의 주요 무역파트너중

의 하나로 되게 하였다.

셋째, 수출입제품의 구조는 초급제품을 위주로 하던데 로부터 공업제품을 위주로 개변 되었다. 20세기 60년대 한국의 초급제품의 수출은 수출총액의 73%를 차지하였지만 70년대 말 공업제품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수출총액에서 83.6%에 달했다²⁸⁾.

1990년대에 이르러 자본기술을 기초로 하는 전자제품, 화학공업제품, 강철재료 등 중간 재료의 수출은 더더욱 대폭 증가하였다. 이런 수출제품구조의 고급화는 한국산업구조조정의 심화, 수출대체와 외향순환체계의 부단히 제고되고 있음을 명확히 표명한다.

다른 한 방면으로는 한국수입제품의 주요구조는 원재료, 자본화물 생산자료, 소비자료 등 3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그중에서도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며 50%이상 달한다. 이리하여 한국은 중국에 높은 부가가치의 공업제품을 수출하고 낮은 부가가치의 자원, 노동 집약형제품을 주요하게 수입한다.

그 중에서도 주요하게 원료형 상품을 위주로 하는데 예를 들면 방직제품원료 및 그 제품, 쌀 금속 및 제품, 광산물과 농산품 등이 있다. 이런 추세는 객관적으로 중국의 상품수입 수요와도 맞먹는데 2002년 우리가 한국에 수출한 총액의 77.9%가 모두 방직원료 및 제품, 기계전기음향설비 및 부품, 쌀 금속, 광산물, 화학공업유형의 제품과 농산품 등 6대유형의 상품이 되게 하였다. 한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수출입구의 높낮음이 바로 한·중 두 나라 무역역조가 존재하고 부단히 확대하는 심각한 역사배경을 구성하였다.

5. 한국의 대중국 수출 전략 추진 요소 강화

첫째, 한·중 무역협력의 단계를 부단히 높인다. 한·중 양국이 1992년 외교관계를 건립한 이래 비록 여러 차례의 정권교체를 거쳤지만 한국의 역대 정부는 모두 중국과 무역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첫자리에 놓았고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의 추진을 매우 중시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새로운 무역협력분야와 협력방식을 개발하여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더 발전시켜 미래 5년 안에 두 나라의 무역규

28) 송희영, '중국의 반덤핑규제요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30권 2호, 한국무역협회. 2005.04.

모를 1000억 달러에까지 증가시키자고 보다 명확히 제기하였다.

둘째, 민간교류가 무역발전을 이끌어 나간다. 양국정치의 상호신임 가장한 기초에서 한국사회의 각 계층은 중국 민간과의 연계를 적극 발전시켜 두 나라 민중의 상호 이해와 신임을 증가시켜 두 나라 무역협력의 발전을 추진시켰다. 현재 중국과 한국은 이미 기업계, 금융계가 공동으로 참여한 "한·중 환경산업 투자 평론"등 협상기능을 건립하였으며 이는 두 나라사이 경제협력이 더 깊은 단계로의 발전을 추진하였다.

셋째, 한국 기업이 중국시장을 개척할 것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중국이 올림픽, 세계박람회 유치성공과 서부 대 개발계획, 동북공업기지를 진흥을 전면 가동 시켰는데 한국은 관련시장의 수요규모가 부단히 확대하는 이 거대한 상업기회를 잡아 정확성 있게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을 더 개척할 수 있게 지도하여야 한다. 하나는 기업을 도와 중국시장을 이해하여야 하는데 한국 외교 통상부는 매년 여러 차례 경제무역대표단을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시장의 업계정황과 발전 잠재력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대한 경제협력방안을 확대할지에 대하여 연구한다. 두 번째는 한국기업이 중국에 대한 수출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한국기업이 중국에서의 수출경로가 유한한 정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제품생산, 유통, 판매 등 절차의 종합관리를 가강해야하며 전자상무 등 방식을 이용하여 중국에 대한 수출효율을 높여야 한다. 세 번째는 한국제품에 대한홍보역량을 가장하여야 한다. 한국정부는 월드컵축구경기, 한·중 외교관계 건립10주년, "한류"열풍 등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한국기업을 협조하여 중국에서 한국 상품 전시회와 "한·중 교류 절"을 개최하며 홍보관측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런 한국정부의 일련 조치의 추진아래 14년 동안 한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은 매년마다 증가하며 이는 한국이 우리에게 대한 수입을 훨씬 초과하여 중국의 무역역조를 심화시켰다.

제 3 절 한 · 중 무역불균형의 문제점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대중국 무역수지는 1979년 6백만 달러 무역적자 이래 1992년도 10.7억 달러 적자에 이르기까지 14년간 총 94억 82백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다가 수교 1년 후인 1993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어 2007년에 이르기까지 14년간 연속 매년 흑자를 유지하여 총 1,153억 달러의 흑자 누계를 달성하였다.

현재, 한국은 중국의 6대 무역 파트너로서 6대 수출국이자 4대 수입국이다. 2007년 한 · 중 양국의 무역 총액은 동기대비 19% 성장한 1,59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그 중 중국의 수출, 수입액은 각각 동기 대비 26% 성장한 561억 4천만 달러, 15.6% 성장한 1,037억 6천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이렇게 무역흑자를 지속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의 경제 개발과 대외수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원부자재와 자본재를 한국 기업으로 부터 공급하는 근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 · 중 간 기술격차가 이어지는 한 향후 무역흑자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상당수 한국 기업이 생산과 가공을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주요 생산설비와 원재료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에게 고부가가치의 첨단기술제품을 수출하는 반면 중국은 한국으로 농산물, 방직품 등 저가 제품을 주로 수출해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1. 한 · 중 무역 구조 변화의 문제점

2000년 이후 한 · 중 무역마찰은 심화 되었다. 한국의 중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가장 많았으며 이중 가장 대표성이 있는 것이 2000년 한 · 중 마늘 사건이었다.

무역 마찰이 나타난 주요한 원인은 다음과 같은 2개 방면에서 고찰 할 수 있다.

먼저, 중국 국내 요인에서 보면, 근대 중국 기업에서 동종물품에 대한 수출이

맹목적인 과열로 나타난다. 즉 잘 팔리는 상품 하나를 선택한 후에 수많은 기업들은 모두 경쟁적으로 수출을 한다. 따라서 수많은 기업들은 한 가지 상품을 판매하고 수출하며 시장 쟁탈을 위하여 밀저도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경쟁을 함으로써 한국에 덤핑의 구실을 준다.²⁹⁾

한국 측 요인에서 보면, 중국 시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중국 경제 발전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한국은 중국을 단순한 계획경제 체제국가로 간주하여 중국의 수출제품에 대하여 엄격한 감독과 관리를 한 데 일부 원인이 있다.

양국 무역관계에서 마찰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끊임없이 나타난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여 양국 우호발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인가”이다. 앞으로 중국이 유의 하여야 할 것은 수출기업을 잘 관리하고 국제관례에 부합하는 무역법규와 관련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다³⁰⁾

앞에서 무역 구조 경사의 문제점을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무역 구조가 한·중 간 무역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불균형 상태를 바꾸려면 무역구조의 개선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한·중 무역 구조는 양국의 산업구조와 미래 발전의 변수가 된다.

<표 4-3>에서와 같이 2005년과 2008년의 통계를 분석하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주요한 수출제품은 여전히 농산물과 광산물 등 자원 밀집형 제품이었다. 복장과 전자제품의 성장도 비교적 빠르나 기술 함량이 낮았고 대부분 가공, 조립 제품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품 수출은 여전히 노동 집약형 제품이 주종을 이루었고, 화공, 강철, 운수설비 등 자본 밀집형 제품은 상대적으로 성과를 올리기 어려웠다.

29) 王磊(2003) (更深層次的貿易保護-歐盟對華產品反傾銷), 黑龍江對外經貿.

30) william perr(2000) 「關鍵在于積極在訴-從美國對華反傾銷案中獲得的啓示」

<표 4-3> 중국의 대한국 수출구조의 변화 (단위: 억 달러,%)

순 위	2005년				2008년			
	상품	수출액	비중	동기대 비	상품	수출액	비중	동기대 비
1	석탄	6.98	6.18	54.2	전자부품	18.18	14.52	-6.3
2	옥수수	6.60	5.64	385.2	공업용전 자제품	12.62	10.07	31.0
3	사무자동화 설비	4.15	3.67	35.2	복장	11.37	9.08	30.8
4	반도체 부품	3.51	3.10	0.9	농산물	9.94	7.93	27.6
5	석유 및 아스팔트오일	3.10	2.74	102.6	석탄	9.04	7.22	18.7
6	변압기	2.72	2.40	77.8				
7	자동데이터 처리설비	1.06	0.93	72.0				

자료: 중국 주한대사관. 2009.04.

한편,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보면 화공, 기계, 플라스틱 등 자본 밀집형 제품은 여전히 한국의 대중국 주요한 수출제품이었으며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안정되어 60%이상 유지할 수 있었다. 기술함량이 비교적 높은 전자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해마다 올라갔다. 기초제품 및 생활용품, 섬유품, 잡화 등 노동 집약형 제품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내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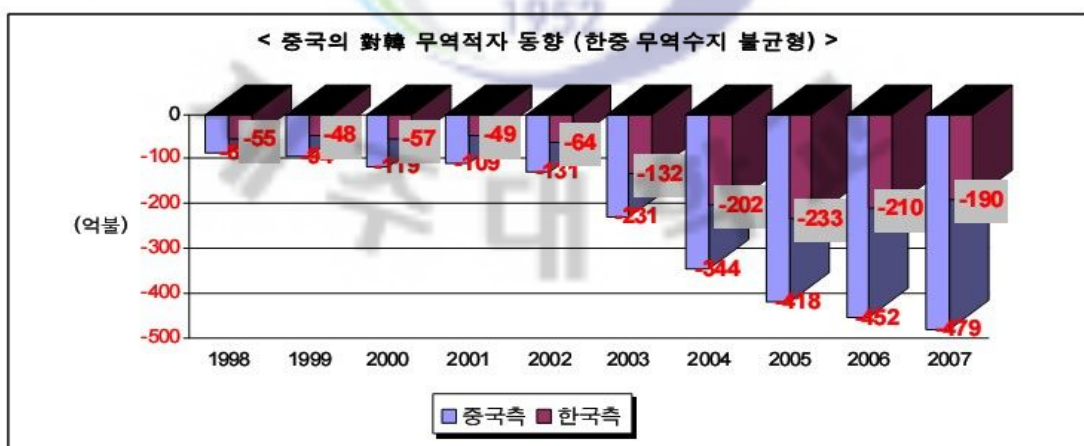
위와 같은 분석에 의하면, 중국이 한국에 대한 비교우위는 여전히 노동 집약형 제품의 생산부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중국은 현실에 입각하여 경공업과 방직공업품의 수출우세를 이용하여 신기술로 전통적인 생산방법과 생산설비를 개조하며 제품의 부가가치와 기술함량을 제고하는 한편 장비공업의 강화로 합성섬유, 고급 옷감 등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부분의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전자통신설비를 후부조립 공정에서 이전 생산 공정까지 전환하도록 하며, 동업 내 기술수준이 비교적 높은 생산부분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2. 한·중 무역수지의 불균형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 할 때 중국의 수출입총액은 206.4억 달러이다. 그 중에 수출실적 97.5억 달러, 수입은 108.9억 달러, 무역적자는 11.4억 달러이다. 1990년부터 중국의 수출입총액은 1,154.4억 달러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무역수지는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했다. 그 후 개혁과 개방의 가속화에 따라 중국의 흑자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1995년 무역흑자는 167억 달러에서 2000년에 241억 달러로 상승했다. 2005년 무역흑자는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06년 1,775억 달러, 2007년 2,622억 달러, 2008년 2,95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2009년은 금융위기 관계로 무역흑자는 2,000억 달러의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은 국제무역에서 큰 성과를 달성했지만 한국과의 무역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과 중국이 처음에 수교할 때 중국은 약간의 흑자를 냈지만 무역규모의 확대와 개방의 지속에 따라 중국의 흑자는 없어지고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다. 통계를 따르면 1993년 이후 한국과 중국의 무역수지는 해당 국가 기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홍콩경유 재수출·홍콩경유 수입의 과소계상·운임 및 보험료 등의 통계방식의 불일치 때문이다. 중국 측 통계자료와 한국 측 통계자료를 참고하고 다음 그림을 통해 중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4-2> 중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동향



자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2008.04.

1998년에 중국의 무역적자는 55억 불이다. 2003년부터 적자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2005년 233억불의 적자로 최고치가 되었다. 2006년~2007년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2008년 중국의 대 한국 무역에서 무역적자는 145억 불이다. 중국의 산업고도화는 한·중 간 교역구조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 세계 교역 전반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은 평균30%를 상회하는 수출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수입증가세가 최근 크게 둔화되면서 무역흑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과의 국제 분업구조상 한국과 비슷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대만, 싱가포르 등에 대한 수입수요가 크게 둔화되었다. 중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의 제고에 따라 한국, 대만, 등의 기존 수입제품대상으로 국내제품 대체 조치를 취하면서 이를 국가와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있다.

3. 한·중 직접투자의 불균형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는데, 1980년대 중반까지는 그 실적이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러다가 1979년 이란혁명으로 부터 유발된 제2차 석유과동 및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등에 따라 한국정부는 외자상황에 대한 압력을 느끼고 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직접투자를 자유화 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 되었다. 또한 1990년대 중반에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개방하고 외국인 투자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여러 가지 적극적인 투자자유정책의 실시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경제침체, 북한핵문제, 노사갈 등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가 약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외자도입정책은 대외개방전략 추진과정에서 아주 큰 변화를 보여 왔다. 1960년대 초에 중국은 구소련과의 이념분쟁을 계기로 해외자본도입을 거의 단절 시켰고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 자급자족 경제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1978년 덩 소평(鄧小平)의 등장과 함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국가의 목표를 경제건설에 두고 대내적으로 경제체제를 개혁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개방 정책을 실시하였다. 대외개방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바로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다. 2001년 말 중국은 WTO에 가입하게 되면서 대외개방의 심도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는 더욱 큰 성장세를 보였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많은 나라로 부상하였다. 31)

한·중 투자현황의 표를 살펴보면, 한·중간의 직접투자는 투자규모, 투자주체, 투자 대상 등 차이가 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 비해 중국의 대한국 투자 건수는 적고 투자규모도 작다. 양국의 투자 불균형현상이 심한 상태이다.

<표 4-4> 한·중 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 불, 신고수리기준)

	해외투자					대한투자				
	전체		대 중국			전체		중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중
2001	2,327	6,362	1,136	991	15.6	3,419	11,292	812	70	0.6
2002	2,747	6,252	1,545	2,047	32.7	2,441	9,102	442	249	2.7
2003	3,079	5,579	1,832	2,490	44.6	2,597	6,468	522	50	0.8
2004	3,924	7,900	2,242	3,521	44.6	3,104	12,771	596	1,165	9.1
2005	4,500	9,030	2,320	3,522	39.0	3,705	11,562	672	68	0.6
2006	5,250	18,460	2,291	4,504	24.4	3,108	11,233	333	40	0.4
2007	8,467	15,096	3,343	4,855	32.2	3,559	10,509	365	385	3.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자원부. 2008.04.

한·중 직접투자의 실태 파악하기 위해 양국 간 직접투자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특징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특징을 보면, 투자자면에서는 재벌 기업을 포함한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등 다양한 주체가 중국에 투자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투자자를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으로 구분할 때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총 건수의 60%, 총 투자액의 44%를 차지하

31) 정상호,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대응방안”, 석사논문, 조선대학교, 2006. 8, pp.60~61.

는 반면,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46%, 21%에 불과하다. 중국의 통계에 근거한 한국의 대중국 투자의 건당 규모도 중국의 전체 외국인 투자평균 규모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³²⁾

투자업종 면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전체 투자의 80% 내외를 유지해 오면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여타 지역으로의 해외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수준인 것의 2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 내 전체 외국인 투자에서 제조업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5% 내외인 것에 비해서도 뚜렷하게 높은 것이다. 한국의 제조업 투자는 초기에 섬유, 신발 등 전통적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출발하여 전자, 화학 등으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자동차, 기계, 조선 등 광범한 업종으로 확산되었다. 한편 최근에 그 비중은 높지 않지만 유통, 부동산 등 다양한 서비스 부문의 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지역은 초기에 산둥성(山東省), 요녕성(遼寧省) 등 일부 지역에 제한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점차 전체 연해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그 결과 현재는 산둥성(山東省)을 필두로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 : 上海, 江蘇省, 浙江省), 천진(天津), 북경(北京) 지역, 요녕성(遼寧省) 중심의 동북(東北) 지역 순서로 집중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06년 처음으로 강소성(江蘇省)이 산둥성(山東省)을 제치고 제1위 투자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여타 외국의 대중국 투자와 비교할 때 광둥성(廣東省), 복건성(福建省) 등 지역의 비중이 낮은 편이며, 내륙지방에 대한 투자는 다른 외국과 비슷하게 미미한 편이다.

나. 중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의 특징과 추세

최근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건수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대부분은 극히 소규모의 무역, 식당 관련 투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 당국의 신고 기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2006년 말까지 누계로 5천여 건, 18억 달러에 달하였다. 따라서 평균 건당 투자 규모가 30여만 달러로 나타나고 있지만, 극소수의 대형 투자를 제외하면 건당 투자 규모는 1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대

32) 신태용, 한·중 F T A 체결이 한중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2005.12, p.20

규모 투자의 예로는 2002년 BOE 그룹의 하이닉스 TEF-LCD 부문 인수(1억 9천만 달러)와 2004년 상해기차의 쌍용자동차 인수(5억 달러)를 들 수 있다.³³⁾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주로 자동차,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상하이 자동차의 쌍용 인수 및 GM대우 지분 매입, 한국 3위 PC 제조업체인 상보의 판매 네트워크와 A/S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한 레노 보의 삼보 인수 계획 등을 비롯하여 다탕모바일(DT Mobile) 과 ST Telecom이 다탕 모바일사에 TD-SCDMA 공동개발, 테스트, TD-SCDMA 어플리케이션 검증 등을 위한 공동업무개발센터 설립을 공동 발표했다.

중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주로 한국 기업의 경영 관리 노하우를 배우기 위한 경우가 많다. 중국은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기초로 외국의 기술, 자원, 브랜드 등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 투자를 장려하는 주출거(走出去)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투자 실적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나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중국의 대한국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33) 이정,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에 대한 연구--LG중국천진법인 중심으로”, 석사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제경영 지역학대학원, 2007. 8, pp.55~57.

제 5 장 한 · 중 무역불균형의 개선방안

제 1 절 수출입 품목 구조조정 가속화

덩샤오핑은 "품질은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였다. 상품의 품질문제는 그 상품이 국제시장에서의 신용과 경쟁력의 관건이다. 그는 "수출하는 판매의 길을 여는 관건은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품질이 높지 않으면 경쟁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품질이 좋아야 만이 수출경로를 만들 수 있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반드시 제품 품질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그는 또 수출제품의 품질과 수량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술하였는데 제품품질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큰 절약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품질이 좋다는 것은 수량이 많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만약 제품이 수량만 추구하고 품질은 추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생산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더군다나 품질문제에는 품종, 규격도 포함한다. 수출입 상품은 대방의 수요 하는 품종, 규격, 디자인 등을 엄격히 준수하며 서로 대방의 수요 하는 품종, 규격양식 등을 존중하는 정황 하에서 공급을 진행하여야 하며 서로 대방의 민족애호와 민족습관을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³⁴⁾

중국이 한국에 대한 전통적 수출은 자원 집약형 혹은 노동 집약형 제품에 속했다. 지금의 국제환경속에서 이런 유형 제품의 경쟁은 날로 거세지고 있으며 받는 충격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근년에 한국에 대한 수출상품의 구조는 비록 개선을 가져오긴 하였지만 낮은 부가가치와 낮은 기술함량의 노동 집약형 특징은 아직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의 수출상품에 대한 구조조정을 다그치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

첫째, 국제무역 범위를 넓혀 수출상품의 다양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중국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중국의 일부 기술함량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을 날로

34) 김 진, "한 · 중 무역관계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2008. 6. pp.62~64.

국제시장의 환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 제품들, 예를 들면 기계가전제품의 부품 및 완제품들(텔레비전, 전화기 등)이 한국에 대한 수출을 가장할 수 있다.

둘째, 수출상품의 품질을 높이고 특히 고신기술제품의 한국시장 수출을 증가하여야 한다. 재빨리 "저렴한데서 이기는 것"과 "양으로 이기는 것"에서 "품질로 승부를 얻는"것으로 전이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 만이 국제형세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경쟁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켜 우리 수출능력을 제고하고 수출제품이 진짜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제품으로 될 수 있다. 동시에 한국 측은 우리의 공업화 건설 및 산업구조 업데이트의 수요와 결합하여 중국에 더 많은 원재료, 석유화학 제품 및 플랜트 등을 수출하기 바란다. 요컨대 한국과 무역협력을 가장하려면 양국은 눈앞의 이익을 중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장구한 이익도 고려하여야 하며 한국의 자본을 새로운 무역 분야로 투자시키게 인도하여야한다. 한국의 반덤핑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우리의 수출 상품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중국이 한국과의 무역과정에서 존재하는 거대한 역차문제를 유력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양국의 무역이 건강한 발전을 최대한 추진시킬 것이다.

셋째, 우리가 한국에 대한 수출상품의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현재 한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입무역은 수출고급화와 수입저급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출상품의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출제품은 대부분 자원집약형과 노동 집약형을 위주로 하는데 이런 유형의 제품은 부가가치와 기술함량이 낮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하며 충격도 쉽게 받는 편이다. 이는 우리의 수출무역의 증장에 극히 불리하다. 이런 현상의 형성은우리가 과거 다국적 회사를 이용하여 국제화 전이를 생산하던 시기에 발전된 "많이 수입하고 많이 수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무역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그러나 20여년의 개혁·개방을 거쳐 우리의 가공무역제품은 이미 노동 집약형으로부터 기술 집약형으로 전변 되었는데 가공절차는 점차 증가되고 산업사슬이 연장되고 있으며 일부 고신기술 산업의 제품들은 이미 세계범위에서 비교적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반드시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우리가 한국에 대한 수출상품의구조를 주동적으로 조정

하여 우리가 한국에 대한 수출총액이 대폭 증가를 가져오게 해야 하며 한·중수출입의 기본적인 평형을 실현하여야 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교우세가 있는 전통적 상품의 수출을 유지하는 기초에서 한국에 대한 무역범위를 확대하여 수출상품의 품질을 더 제고해야 하며 특히 우리에게 비교우세가 있는 고신기술 제품들 예를 들면 기계전기제품, 새로운 재료, 생물공정 등이 한국에 대한 수출량을 증가해야 한다. 동시에 한·중 두 나라의 상호 보충성 기술무역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중국이 한·중 무역과정에서 갖는 역차의 국면을 진정으로 돌려놓아야 하며 서로간의 호리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 2 절 한국 수출시장의 다변화 방안 추진

1. 경쟁국의 시장잠식에 대비한 제품 차별화 전략 수립

한국제품의 중국수입시장 점유율은 2007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품목의 중국수입시장 점유율 변화는 다음과 같다.

<표 5-1> 한국 제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단위: %)

품목	2007	2009
자동차부품	12.2%	6.1%
신발	14.0%	9.0%
타이어	3.4%	0.4%
음향기기	8.6%	6.4%
가죽모피	8.2%	6.2%
철강제품	13.8%	10.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중국시장 지배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기술력 제고를 통한 경쟁국과 차별화된 상품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중 수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중국현지 한국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이 요망된다.

2. 무역과 투자의 결합을 통한 대중국 교역 확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1/3이상이 직접투자와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대중국 교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무역과 투자를 결합하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서비스 분야와 유통 분야에 대한 투자진출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하여 중국 내의 중국계 유통기업과 다국적 유통기업을 통한 다양한 수출경로를 모색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한국정부는 비관세장벽을 낮추어야 하고 저가제품 특히 농산품에 대한 지원정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중국투자를 도입한다.

3. 수출제품 및 시장의 다변화

현재 한국의 수출시장이 중국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중국경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자칫 중국 시장의 변화에 즉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부 중간재의 경우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 내 수요산업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중국 수출에서 출혈수출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제품에서 중국이 경쟁력이 높아질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품목별 수출에 있어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할 것이다.

4.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기간이 길수록 현지에서 중간재를 조달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중국 내 시장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재중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제고 되지 않을 경우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중 수출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고부가가치부문에서 차별화 된 수출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의 경쟁을 피하고, 핵심부품 및 소재, 중간재 공급에 특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중국 통상 협상력 제고

향후 한·중 간 경제협력이 가속화되고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될 경우 중국과 단순히 무역과 투자문제를 넘어 지적재산권, 통상정책,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통상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경제교류의 양적확대와 이슈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한중간 통상 분쟁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중국의 협상전략에 대한 연구는 물론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대중국 협상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주요국, 국제기구와의 선택적 공조를 통해 대중국 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

제 3 절 대흑자국 중심 균형화 집중

1. 수입상품 전시회 지원 강화

2003년부터 국내에서 매년 개최해온 수입상품 전시회는 우리나라의 자유무역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해외기업들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자, 무역적자가 큰 국가의 경우 무역마찰을 예방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으로 적절하다.

매년 30여국 16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국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무역마찰 예방에 기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2. 수입 사절단 파견 확대

매년 10여 차례의 구매사절단이 파견되고 있으며 국내 산업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확보 및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일 뿐만 아니라 수출국을 대상으

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무역마찰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다.

3. 보호무역 저지를 위한 양자간 · 다자간 노력 지속

FTA는 무역자유화의 상징적 산물이며 당사국간 무역현안을 적절히 반영하여 체결되기 때문에 보호무역과 무역마찰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자간 협상인 WTO DDA 협상에서도 보호무역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자유무역 기조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제 4 절 한 · 중 통상 협력 강화

한 · 중 경제협력의 방향은 중국경제가 제공하는 기회를 극대화하는 한편, 중국의 정책적 영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거나 한국의 산업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중국경제의 블랙홀 현상에 매몰되는 등의 위협요소를 극소화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한국의 기업 환경이 선진국 형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신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자본부족과 그에 대한 정책부재 문제 해결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외적으로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되 거기에서 오는 모든 대중국 관련 정책적 변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³⁵⁾ 또한 한 · 중 무역의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국정부는 보호무역 저지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한국 측에서는 수입사절단 파견확대, 수입상품 전시회 지원강화 등으로 대중국 수입을 활성화하여 무역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원부자재 수입전문 중소기업 육성, 실무중심 수입인력 양성, 수입관련 정보제공 강화, 수입 지원센터 설치 · 운영 등으로 내수와 무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수입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가격 및 동향분석 강화, 전자

35) 정종인, 이한녕, 전개논문, p34.

무역 확대, 수입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균형무역을 지향하는 수입인프라 정비도 필요하다고 본다.³⁶⁾

제 5 절 한 · 중 FTA의 실현을 통한 무역불균형 해결

1. 한 · 중 FTA의 기대 효과

한 · 중 FTA 논의는 2007년 9월 민간공동연구 추진합의의 달성에서 부터 시작됐다. 한 · 중간의 FTA협의를 중국 측에서 보면 제조업 강국을 상대로 한 유일한 FTA 논의이다. 한 · 중 FTA 민간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결 시 한국의 GDP는 2.4~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의 GDP는 0.8~1.32%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표 5-2> 한 · 중 FTA의 경제성장 효과 (단위:%)

기준연구	한국	중국
정인교 2009	0.55~3.29	0.27~1.32
KIEP 2008	2.44~3.17	0.40~0.59
산업연구원 2008	0.18~1.08	0.04~0.18
KIEP 2007	0.14~2.30	0.07~0.78

자 료: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 · 중 FTA는 개방 확대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 및 대중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나타나고 있는 대중 수출 증가세의 둔화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 업계에서도 원칙적으로 한 · 중 FTA에 찬성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의 한 · 중 FTA관련 인식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향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FTA로 64.3%가 한 · 중 FTA를 응답하였고, 그 중 64.6%는 FTA가 자기 기업에 '유리'하다고 응답했다. 수도권 300개 기업(대한상의, 2009.11,)74.7%가 한 · 중 FTA에 찬성하고, 63.3%가 3

36) 한국무역학회 “2010국제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 2010.12. p.301~302.

년 내에 체결을 희망한다. 대중국 무역업체 392개(한국무역협회,2009.11,)71.5%가 한·중 FTA를 지지했다. 중국기업의 한·중 FTA 관련 인식조사 결과는 매우 지지 20.2%, 지지73.6%, 보통 6.2%, 반대 0%(KOTRA, 2009. 4,178개 중국기업 대상)으로 나타났다.

2. 한·중 관세 인하를 통한 무역확대

한국과 중국의 평균관세율을 살펴보면, 2008년 실행관세율을 기준으로 중국의 단순 평균 관세율은 9.8%로 한국(11.9%)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세계 수입액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 관세율에서도 중국은 4.62%로 한국(6.06)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HS 1~24 기준)의 경우 중국은 단순평균 관세율 14.5%로 한국(41.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중평균에서도 중국은 9.35%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51.06%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품(HS 25~97 기준)의 경우 중국은 단순평균 관세율은 9.0%로 한국(6.7%)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중평균 관세율도 4.56%로 한국(4.08%)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5-3> 한·중 간 관세율 비교(2009년 기준) (단위: %)

	중국			한국		
	단순평균	대 세계 가중평균	대한 가중평균	단순평균	대 세계 가중평균	대중 가중평균
전체	9.8	4.62	4.54	11.9	6.06	7.29
농산물 (HS 1~24)	14.5	9.35	24.59	41.5	51.06	52.54
광산물 (HS 25~26)	2.9	0.55	2.34	2.8	1.18	2.19
공산품 (HS 27~97)	9.0	4.56	4.49	6.7	4.08	4.62
대상품목수	7,550개 품목(HS 8단위 기준)			11,260개 품목(HS 10단위 기준)		

자료: WTO/IDB,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를 이용하여 계산함.

한·중간의 교역구조를 반영한 관세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 관세율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대한민국 가중평균 관세율은 4.54%로 한국의 대중국 가중평균 관세율 (7.29%)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중국의 대한민국 가중평균 관세율은 24.59%인 반면, 한국의 대중국 가중평균 관세율은 52.54%에 달하고 있으며, 공산품의 경우에도 중국의 대한민국 가중평균관세율은 4.49%로 한국의 대중국 가중평균 관세율(4.62%)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중 교역에 있어 한국은 중국에 관세율이 낮은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관세율이 높은 일차상품과 소비재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로 한·중 교역에 있어 중국보다도 한국에서 관세에 의한 수입시장 보호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양국의 관세율이 인하되고 양국의 무역액을 확대 할 수 있다.

3. 한·중무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협력

중국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한국, 일본, 대만의 대 중국 수출 품목을 비교하면, 중국시장 점유율에서 일본은 14.6%, 한국은 11.3%, 대만은 11.0%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20개 품목 중(HS 4단위) 한국과 일본은 10개, 한국과 대만은 14개 품목이 중복된다. 중복품목은 한국의 대중수출액의 45.7%와 60.6%를 차지한다. 또한 FTA는 투자환경 개선효과, 서비스시장 개방효과 등이 기대된다. 한국의 대 중국 투자는 해외투자 누계의 25%를 차지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대중투자 중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농림수산업 등1차 산업에서 중국제품의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협상시 한국은 국내 산업현황을 고려해서 우려사항을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표 5-4> 한·중 관계의 특수성 및 FTA 추진 시 고려 사항

특수성	상황	FTA 추진 시 고려할 점
높은 의존도	최근 수출 둔화	중국의 수입대체 진전을 극복할 방안
중간재 중심	광범한 관세 감면	실질관세율의 수준을 고려한 협상
경쟁구조	일본, 대만과 경쟁	비대칭적 가격경쟁력 효과를 확보할 필요
많은 투자기업	최근 경영 악화	투자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농수산업 유사성	피해 예상	한국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 예외/민감 품목화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표 5-4>에서 나타난 한·중 교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시나리오 별 장단점 파악이 필요하며, 포괄적 협상 구조를 통해 양측의 무역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 특히 한·중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국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대체제의 개발을 위한 육성 정책과 한국은 대중국에 기술을 이전 시키면서 중간재 수출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상호 무역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기 위하여 한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제 3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제 6 장 결 론

한·중간의 무역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19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간 교역규모는 2005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7년에는 1,450억 달러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 및 최대 투자대상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3 교역상대국이 되었다. 한·중 무역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교역 확대기로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부터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이전까지 양국 간 교역이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으로 전환되고 교역규모도 대폭 늘어난 시기이다. 둘째,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부터 중국의 WTO 가입이 이루어진 2001년까지의 기간으로서 양국 간 교역이 소강상태인 시기이다. 셋째, 중국의 WTO 가입부터 2005년까지의 제2 발전기로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대폭 증가하고, 교역규모가 1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교역상품도 고위 기술 산업 중심으로 고도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넷째, 2005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로 양국 간 교역은 2005년 하반기 이후, 양국 간 무역불균형이 축소되는 구조가 정착되는 안정화 단계로 진입한 시기이다. 안정화 단계로 들어선 양국 간 무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양국 간 교역은 양적 팽창과 더불어 무역구조는 노동집약적 상품에서 기술집약적 제품으로 변화하였다. 즉, 양국 간 교역이 소재류에서 부품류 중심구조로, 중·저위 기술 산업에서 고위 기술 산업 중심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둘째, 양국 간 교역은 가공무역과 중간재 중심의 교역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양국 간 교역은 외자기업 중심의 교역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넷째, 양국 간 교역구조는 산업간 무역에서 산업 내 무역 중심으로 변화하여 왔으며, 양국무역 간 협조관계는 강한 편이나 점차 경쟁구조가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교역 특성이 한중 교역 협력 및 경쟁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의 한국 상품에 대한 무역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의 개방과 경제발전에 따라 자본 및 기술력이 향상시켰다. 한·중 양국 간 기술경쟁력을 살펴보면, 현재 중국기업의 기술경쟁력이 한국기업의 80% 수준에 불과하여 현재는 한국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기술개발속도가 지속되면서 3~4년 이내에 대부분 한국기업의 기술경쟁력 수준과 동일한 수

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한국제품의 경쟁관계는 치열해 질 전망이다.

중국은 국제무역에서 큰 성과를 달성했었지만 한국과의 무역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과 중국이 처음에 수교할 때 중국은 약간의 무역흑자를 나타냈지만 무역규모의 확대와 개방의 지속에 따라 중국의 흑자는 없어지고 무역의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한·중 무역의 불균형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한·중간의 무역 불균형은 무역수지의 불균형, 양국 직접투자의 불균형, 무역마찰의 빈번한 발생 등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 할 때 중국의 수출입총액은 206.4억 달러이다. 그 중에 수출실적 97.5억 달러로 수입은 108.9억 달러, 무역적자는 11.4억 달러이었다. 한·중간의 직접투자에서는 투자규모, 투자주체, 투자 대상 등 차이가 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 비해 중국의 대한국 투자 건수가 적고 투자규모도 작다. 양국의 투자 불균형현상이 심한 상태이다. 한·중 무역 수지의 불균형, 투자의 차이, 무역구조의 차이 등으로 인해 양국의 비교우위산업의 차이가 있다. 무역의 불균형은 무역 분쟁의 현상으로 나타났다. 양국의 반덤핑조사의 건수도 많아지고 있다. 한·중 무역 분쟁은 주로 농산품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마늘분쟁, 김치분쟁의 확대는 양국에 큰 손해를 초래했다.

한·중 산업간 무역 분쟁은 수년간 지속된 중국의 대한 무역수지적자의 누적과 중국 산업구조에 심각한 대한 의존성 등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자구책으로 일련의 무역구제조치들을 현재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무역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대한국 수출상품구조를 조정시켜야 한다. 중국제품의 품질과 기술수준을 제고시키고 한국기업들이 중국 국내에서 원자재를 구매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품의 표준화과정을 가속화하고 한국의 법률법규, 기술표준, 수입시장 현황 등을 파악하여 국내기업의 수출을 위해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한편, 무역 분쟁의 해결 방법을 개선 시켜야 한다. 보복적인 조치를 이용하지 않고 가능하면 세계무역기구를 통해서 무역제도를 능숙하게 활용해서 자국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WTO규칙을 잘 아는 전문 인력과 대한국 무역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대외무역이 발전하고 타국의 반덤핑 등 구제조치를 피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WTO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중국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기술을 제고하는 동시에 상호 정보를 교환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의 반덤핑 등 조치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한국 측에서는 중국 내수시장 수출을 확대하고 제품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대중 통상협력을 제고해야 한다. 양국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회피하고 한·중 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중 양국은 FTA의 추진을 가속화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서로 간에 주요 무역상대국이 되었으며, 중국의 경제 성장속도, 시장 확대 가능성 및 동북아 안보질서 구축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한·중 FTA는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측면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한·중 간 쌍무적 FTA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역내 다자간 FTA결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한·중간 무역 및 경제교류는 급속히 확대 되어 왔으며, 동북아 안보여건 등을 고려할 때 양국 간 FTA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 FTA의 협정을 통해 양국이 무역불균형과 무역마찰을 시정하고, 경제 무역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양국 모두 한·중 FTA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상호협력을 통하여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과제를 적극 개발하여 WIN&WIN의 방향으로 논의해 양국 간 사회적·정치적 이해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양국정부는 한·중 FTA야말로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협력을 증진해 나가야 한다.

한국과 중국정부는 양국의 무역현황과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무역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 정부와 기업차원에서 최선을 다 해야 한다. 한·중 FTA 체결도 장차 어떤 국가의 FTA보다도 더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에 틀림없다. 아울러 양국 간의 FTA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확대 등을 통해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고 나아가 한·중 양국의 경제성장, 교역 및 소비자 후생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김 진, “한·중 무역관계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2008. 6.
- 박광희, “한·중 교역과 대중국 투자에 관한 연구”. 청주대 대학원. 2008.
- 박미자, “한·중 교역과 대 중국 투자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학위논문. 2000.
- 소죽연·손향중, “한·중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07.
- 송희영, 중국의 “반덤핑규제요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30권 2호, 한국무역학회. 2005.04.
- 서갑성, 김종성, “중국의 대외무역정책 전개에 따른 한중무역 활성화방안”, 한국비즈니스리뷰, 제1권 제2호. 2008.12.
- 신태용, “한·중 FTA 체결이 한·중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2005.12.
- 양림립, 국제경제협력, 세계지식출판사, 2010.
- 이승신, 양편섭, “한국의 대중국 교역 동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 이승신, “한국무역구조 분석”, 한국무역협회. 2007. 8.
- 이학춘, “한·중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07.
- 임영모, 복득규, “韓·中 무역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8.2.
- 이 정, “한국기업의 대 중국 직접투자에 대한 연구--LG 중국 천진법인 중심으로”, 석사논문, 부산외국어대 국제경영지역대학원. 2007. 8.
- 유현우, “한·중 무역문제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2008.
- 임영모, 복득규, “韓·中 무역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10. 2.
- 장 영(張穎), “한·중 무역 관계의 특징과 대책연구(韓中經貿關係的特點及對策研究)”. 2008.
- 정상호,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대응방안”, 석사 논문, 조선대학교. 2006.
- 정환우, “한·중 간 교역구조 분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08.03.
- 전광명, “한·중 교역구조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은행. 2008.

- 최 러, “한·중 교역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강원대 대학원. 2008.
- 허장문, “한·중 무역관계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학위논문. 2009.
- 홍진옥, “한국의 한·중 FTA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무역 대학원.
2008.12.

2. 국외문헌

- 魏 巍, 中韓貿易合作的產業內貿易效應：1992~2007, 南開大學經濟學院, 當代經濟管理, 第31卷第3期. 2009.
- 陳 恒, 劉 佳, 中韓貿易產品結構分析, 黑龍江對外經貿. 2008年第7期.
- 洪慧敏, 中韓貿易合作競爭和貿易糾紛對策, 上海交大, 長沙鐵道學院學報第9卷第2期. 2008.06.
- 周松蘭, 中韓貿易結構演進的實證分析, 廣東商學院, 國際商務研究. 2008 第4期.
- 丁 晨, 中韓貿易結構及相關產業國際競爭力分析, 東南大學, 江蘇科技信.2008.02.
- 劉 鑫, 中韓貿易關係現狀分析與前景展望. 山東大學經濟學院, 世界經濟. 2007.
- 趙雲龍, 中韓貿易發展研究, 吉林大學. 2007.
- 金榮基, 中韓貿易的回顧與展望, 吉林大學. 2004.
- 宋 群. "東亞經濟合作의新發展和中國의對外經濟參考.[經濟鑽研參考](격주간). 베이징제기 (총 772 기). 2004.
- 楊聖明,[服務貿易領域新進展],[中國對外經貿理論前延],베이징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03.
- 王 磊, (更深層次的貿易保護—歐盟對華產品反傾銷). 2003.
- william perr, 「關鍵在于積極在訴—從美國對華反傾銷案中獲得的啓示」.2000.

3. 기타자료

<http://kr.blog.yahoo.com/>

<http://www.nanet.go.kr/>

<http://www.koreaexim.go.kr/>

<http://www.kita.net/>

<http://www.mke.go.kr/>

<http://www.koreaexim.go.kr/>

<http://www.kcab.or.kr>

<http://www.riss4u.net/>

<http://www.ccpit.org/>

<http://www.mofcom.gov.cn/>

<http://www.cnki.net/>

www.chinacustomsstat.com

<http://www.e-to-china.com>

http://www.gb.cri.cn/1321/2005/11/29/1327@800288_1.htm



ABSTRACT

A Study on the Plan Improvement for Trade Unbalance Between Korea and China

Yang 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Chinese economy has been rapidly growing more than 10% every year since the reform and market opening of the year 1979. The amount of import and export in 2008 totalled 2 trillion and 555.9 billion dollars up 18% from last year and trade surplus recorded 297.4 billion dollars. Processing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take big portions of the Chinese import and export and China ranks 3rd in the world trade. In terms of trade, Korea is the 4th largest counterpart to China and China is the largest one to Korea. As China is recognized as an emerging market and trade with Korea keeps growing,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such as economic, cultural and non-governmental interchange will strengthen.

China and Korea are geographically close and origins of Oriental civilization. Geographical convenience and cultural similarity were sound bases in developing trade to the two countries. Trade volume was insignificant and mostly indirect way but since the diplomatic ti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1992, trade increased dramatically and converted to direct dealings. From 1992 and 1997, the annual amount of trade increased from 6.8 billion to 28.8 billions dollars by 27.3% on average each year. As China joined the WTO in 2002, it began to lower tariffs and broaden its market opening. As Korea increased investment into China, trade volume surpassed 10 billion dollars and structure of commodities in trade has been

advanced to high-tech industry. Korean-Chinese trade has been stable since the 2nd half of 2005.

Abruptly rising trends in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slowed, whereas it indicates that Korean-Chinese trade enters into a new stage. While export inducement coefficient was decreased by Korean businesses advanced into China and production of intermediate goods of China created import substitution effect, such a sudden rise in export to China doesn't seem sustainable. In the middle of fast-growing trade, imbalance is also deepening. China's deficit in trade with Korea is worsening. Chinese exports are mostly low value products. Agricultural products show a typical example that Chinese commodities are more impacted in the same industry when competing with the counterpart in Korea. Such a industry has a higher frequency of trade disputes. Garlic and Kimch issues each in 2000 and 2004 and others wreaked havoc on related industries of both countries. Korea runs excessive trade surplus with China and has a high dependency on Chinese economy. A high dependence on foreign markets can't ignore latent risk factors.

For a sound and continuous Korean-Chinese trade, it's important to analyse the current state, characteristics of each phase in developments and imbalance in scale and structure of Korean-Chinese trade, and understand the problems and search for improvements.

This paper will focus on imbalance in Korean-Chinese trade and analyse such phenomenons and causes and finally seek for improvements.